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 농어촌 지역 초등학생들이 갖는
방과후학교의 의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및 교육컨설팅 전공

김 연 주

2018년 8월

제주 농어촌 지역 초등학생들이 갖는 방과후학교의 의미

지도교수 김 대 영

김 연 주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6월

김연주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8년 8월

【국문초록】

제주 농어촌 지역 초등학생들이 갖는 방과후학교의 의미

김연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및 교육컨설팅전공

지도교수 김 대 영

본 연구는 제주 농어촌 지역 초등학생들이 갖는 방과후학교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농어촌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의 참여 동기는 어떠한가, 두 번째 학생의 경험과 이해를 토대로 방과후학교가 의미하는 바, 세 번째 농어촌 방과후학교의 활성화 방안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표집한 연구참여자는 제주시 읍·면단위에 소재한 A초등학교 5, 6학년 학생(11~12세) 중에서 2년 이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10명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작성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집단면접을 실시하고 질적 연구방법인 개방 코딩을 이용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질문지 작성 시 참여 형태, 방과후학교의 의미, 방과후학교의 문제점, 활성화 방안 4가지 영역으로 질문을 구성하여 정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 문제에 맞게 도출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농어촌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의 참여 동기는 자발적 참여의 경우 내적 동기에 맞는 선택을 하고 있고, 부모님과 상의 후 선택하거나 부모님의 권유로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 외적 동기에 맞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학생의 입장에서의 방과후학교의 의미하는 바에서는 자기계발과 자기만족, 수업과 차별화된 자율의 시간, 교과 보충을 위한 차선택, 보육기능 네 가지 코딩이 도출되었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자율 vs 의무감의 갈등이다.

네 번째, 농어촌 방과후학교의 활성화 방안으로 수업과 차별화된 경험 중심의 프로그램과 부족한 교과 보충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야 한다.

방과후학교는 지적 호기심이 있거나 공부하고 싶은 분야, 특기적성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자율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학생들이 관심분야나 하고 싶은 것을 찾아 스스로 참여할 때 더욱더 활성화된 방과후학교가 될 것이다.

주제어 :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교육격차 해소, 질적연구

목차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3
1. 소규모 학교의 교육	4
2. 방과후학교의 주요 정책 추진과정	9
3. 제주도내 방과후학교 현황	16
III. 연구방법	25
1. 연구대상	25
2. 연구도구	27
3. 자료처리	29
4.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도	30
5. 연구 윤리성 확보를 위한 노력	31
IV. 연구결과 및 해석	32
1. 참여 형태: 자발 vs 타의의 대립	32
2. 방과후학교의 의미	35
3. 방과후학교의 문제점: 자율 vs 의무감의 갈등	44
4. 활성화 방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하는 학생들	51
V. 결론 및 제언	56
■ 참고문헌	60
■ 영문초록	64
■ 부 록	66

<표 목차>

<표 II-1>	6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현황	4
<표 II-2>	소규모 초등학교 시도별 현황	5
<표 II-3>	학교급 및 지역별 학교 현황	5
<표 II-4>	제주 학교급 및 지역별 초등학교 현황	6
<표 II-5>	방과후학교 주요정책	10
<표 II-6>	전국 방과후학교 운영학교 및 참여 학생 현황	19
<표 II-7>	제주도 2017년 방과후학교 참여율	20
<표 II-8>	전국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	21
<표 II-9>	제주도 2017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	21
<표 II-10>	전국 방과후학교 만족도 현황	22
<표 II-11>	제주도 2017년 방과후학교 학생 만족도 현황	22
<표 II-12>	제주도 2017년 방과후학교 학부모 만족도 현황	23
<표 III-1>	A초등학교 2017년 방과후학교 만족도(학생) 조사 결과	25
<표 III-2>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26
<표 III-3>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의 참여 동기, 문제점, 의미, 활성화 방안 질문	27
<표 III-4>	질문항목별 코딩 결과	29

[그림 목차]

[그림 II-1]	사교육비 지출의 악순환 구조	12
[그림 II-2]	분야별 추진과제	13

I. 서론

방과후학교는 수요자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보호 프로그램이며,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교육활동이다(이자형, 2011). 2016년 4월 30일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비율은 99.8%이며, 참여 학생은 1,761명으로 65.9%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은 89.7%, 학부모는 86.8%의 높은 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교육부, 2016). 이러한 방과후학교가 태동하게 된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안’에 따라 2003년까지 특기적성교육 등 방과후 교육활동이 운영되었고, 2004년 2월 17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따라 수준별 보충학습과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2005년 3월 기존의 특기적성 교육과 방과후 교실, 수준별 보충학습 등으로 운영하던 명칭과 프로그램을 ‘방과후학교’로 통합하여 48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06년부터 전면 실시하였다(김수동, 2006; 백경아, 2008). 2006년부터 방과후학교가 전면 실시된 후 올해로 12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방과후학교는 기존의 특기적성 교육과 방과후 교실, 수준별 보충학습을 통합하여 2006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교육체제로서 다양한 학습 욕구와 보육 욕구를 해소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사회 양극화에 따른 교육 격차를 완화하여 교육복지를 구현하며, 학교·가정·사회가 연계한 지역 교육문화의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이자형, 2011).

방과후학교의 목표는 첫 번째 특기적성, 수준별 맞춤형 교과 프로그램과 돌봄 등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 제공으로 학교교육의 기능을 보완 확대하고자 하며, 두 번째 교과, 예체능 등 관련 사교육을 수요·흡수 대체하여 사교육비 경감을 꾀하며, 세 번째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자녀의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소득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네 번째 학생 보호 및 돌봄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학교 실현으로 지자체, 대학 등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이러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의 운영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리적 여건에 따라 대부분의 강사들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함으로 원활한 강사 수급이 어렵고, 수강인원의 한계가 있어 다양한 강좌 개설이 어려워 한정적인 강좌로 운영되고 있다(이자형, 2011; 백경아, 2008). 이러한 지리적 여건에 제주도라는 지리적 특수성이 더해져 제주도 농어촌 지역의 방과후학교 운영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더해 계층 간의 격차는 자본주의 사회의 내재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우리 사회는 계층 간의 격차 외에 지역 간 격차와 지방간의 격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농산어촌은 우리 사회 전반적인 도시화, 산업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소외된 지역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문제 또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도시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이두휴, 2011).

본 연구는 제주 농어촌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은 학생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농어촌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의 참여 동기는 어떠한가, 문제점은 무엇인가?

두 번째: 학생의 경험과 이해를 토대로 방과후학교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세 번째: 농어촌 방과후학교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통해서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사교육비 경감과 지역 소득 간 교육격차 해소라는 측면에서 추진되어 온 방과후학교의 목적이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농어촌 지역의 초등학교 현장에서 방과후학교 의미를 방과후학교 이용주체인 학생의 소리를 통해 전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제주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소개된 방과후학교의 정의는 “수요자(학생·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보호 프로그램이며,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교육활동이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방과후학교는 각 급 학교 및 지역사회시설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으로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보육 교실(초등), 수준별 보충 학습(고교)등으로 사용되던 각각의 명칭과 프로그램을 통합한 개념으로 2006년부터 사용하고 있다. 다양한 학습 욕구와 보육 욕구를 해소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사회 양극화에 따른 교육 격차를 완화하여 교육복지를 구현하며, 학교·가정·사회가 연계한 지역 교육문화의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김선희, 2012).

김홍원 외(2007, 2008)는 방과후학교를 정규 교육과정 외의 수요자 중심의 학교교육 활동, 방과후학교를 정규수업 이전이나 후에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 경감과 지역 소득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된 학교에서 정규 교육활동 이후에 실시되는 수요자(학생, 학부모) 중심 교육으로 서 학생의 소질과 취미를 계발하고, 특기를 신장하는 교육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007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계획(안)에 수록된 방과후학교의 비전은 누구나 최고의 다양한 학습을 하는 우리 교육 희망 프로젝트이며, 즐거운 학교 행복한 오후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이는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하여 인성·창의성 신장 및 잠재력 계발과 학교를 통한 다양한 학습 및 보육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과,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교육복지 구현, 방과후학교를 구심점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공동체 실현에 있다.

방과후학교의 운영 목표는 특기적성, 교과 프로그램 및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교 교육기능을 보완하고 보육 등 질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밖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여 사교육비 경감을 꾀한다. 또한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을 통해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자체 대학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

용하여 학교를 지역사회화하는 데 있다.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에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도농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투자를 바탕으로 내 고장 교육·복지문제를 다양한 주제와 연계·협력하여 함께 해결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1. 소규모 학교의 교육

가. 소규모 학교

소규모 초등학교의 분류기준은 학자나 시·도에서 적용하는 준거 및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그중 학교 규모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로 학교당 평균 학급 수를 들 수 있다. 학교 당 평균 학급 수는 총 학급 수를 총 학교 수로 나눈 값인데 학교당 평균 학급 수 지표를 활용하여 학교 규모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시지역은 26~30명 사이의 중규모 학급이 58.2%를 차지한 반면, 도서 벽지는 20명 이하의 소규모 학급이 8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규모별로 학교의 규모에 차이가 크음을 알 수 있다(이혜영, 2010).

〈표Ⅱ-1〉 6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현황 (16.04.01)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본교	767	845	873	959	1,032	1,099	1,130	1,166	1,188	1,208	1,212	1,228
분교장	528	507	456	412	368	348	322	296	271	260	250	241
계	1,295	1,352	1,329	1,371	1,400	1,447	1,452	1,462	1,459	1,468	1,462	1,469

※ 출처: 오세희 외(2016: 7)

2016년 4월 전국의 소규모 초등학교는 1,228개교(분교장 241개교)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5년 767개교(분교장 528개교)과 비교해 볼 때, 461개교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분교장의 경우에는 계속 감소(분교장 △287개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초등학교를 교육 목표 달성에 있어 이상적인 학급 수 및 학생 수가 미달하여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상황이 나타나는 학교를 뜻하기도 한다(조미영, 2009). 이는 교육 효과 달성의 측면에서 전체 학생 수, 전체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중 하나라도 미달하는 학교를 소규모 초등학교로 보고 있는데, 이 때 학급당 학생수가 20명 이하인 학교로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만 해당이 되면 소규모 학교로 보고 있다.

〈표Ⅱ-2〉 소규모 초등학교 시도별 현황 (16.04.0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0	9	1	14	3	3	5	3	76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56	97	149	183	178	188	143	20	1,228

※ 출처: 오세희 외(2016: 8), 주. 휴교 학교 포함

2016년 4월 전국의 소규모 초등학교는 1,228개교가 있으며, 시도별 현황을 보면 경북지역이 188개교(15.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전북 183개교(14.9%), 전남 178개교(14.5%) 순이며, 제주는 20개교(1.6%)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은 소규모 학교가 없었으며, 대구지역 1개교, 광주·대전·세종 각각 3개교, 울산 5개교 등 광역시 지역에서의 소규모 학교는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Ⅱ-3〉 학교급 및 지역별 학교 현황 (16.04.01)

지역 유형별	60명이하		60~120명		121~180명		181~240명		241~300명		301명 이상		계
	학교수	%	학교수	%	학교수	%	학교수	%	학교수	%	학교수	%	
면·도서·벽지	1,252	60.5	501	24.2	97	4.7	57	2.8	41	2.0	123	5.9	2,071
읍지역	121	18.0	116	17.2	32	4.8	40	5.9	32	4.8	332	49.3	673
시지역	69	2.0	122	3.5	107	3.1	130	3.7	159	4.6	2,881	83.1	3,468
소계	1,442	23.2	739	11.9	236	3.8	227	3.7	232	3.7	3,336	53.7	6,212

※ 출처: 오세희 외(2016: 9), 권고기준 □, 분교장 포함, 휴교 학교 제외

학교급 및 지역별 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3>과 같다.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소규모 학교는 면·도서·벽지 지역에 다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어서 읍지역, 시지역의 순으로 나타났다. 면·도서·벽지 지역에 소규모 학교가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표 II-4> 제주 학교급 및 지역별 초등학교 현황 (17.04.01)

구분	지역 유형별	60명이하		60~120명		121~180명		181~240명		241~300명		301명 이상		계
		학교수	%	학교수	%	학교수	%	학교수	%	학교수	%	학교수	%	
제주도	면·도서·벽지	3	100	0	0	0	0	0	0	0	0	0	0	3
	읍 지역	21	31.8	23	34.8	9	13.6	5	7.6	4	6.1	4	6.1	66
	시 지역	0	0.0	7	14.0	2	4.0	7	14.0	4	8.0	30	60.0	50
	소 계	24	20.2	30	25.2	11	9.2	12	10.1	8	6.7	34	28.6	119
제주시	면·도서·벽지	2	2.7	0	0.0	0	0.0	0	0.0	0	0.0	0	0.0	2
	읍 지역	12	31.6	12	31.6	6	15.8	3	7.9	2	5.3	3	7.9	38
	시 지역	0	0.0	1	2.9	2	5.9	4	11.8	2	5.9	25	73.5	34
	소 계	14	18.9	13	17.6	8	10.8	7	9.5	4	5.4	28	37.8	74
서귀포시	면·도서·벽지	1	1.4	0	0.0	0	0.0	0	0.0	0	0.0	0	0.0	1
	읍 지역	9	32.1	11	39.3	3	10.7	2	7.1	2	7.1	1	3.6	28
	시 지역	0	0.0	6	37.5	0	0.0	3	18.8	2	12.5	5	31.3	16
	소 계	10	22.2	17	37.8	3	6.7	5	11.1	4	8.9	6	13.3	45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8) 초등학교 일람표(학교별 학생수) 재조직

□, 국립포함, 분교장 포함, 휴교 학교 제외

제주도내의 학교급 및 지역별 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조사에서보다 2017년 4월 조사에 따르면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4개교 증가하여 면·도서·벽지 3개교, 읍면지역에 21개교로 나타났다. 또한 <표 II-4>에서 알 수 있듯이 시지역에는 소규모 학교가 분포하지 않으며 읍면지역 초등학교의 32%(21개교)가 소규모 학교이며, 면·도서·벽지의 초등학교는 모두 소규모 학교임을 알 수 있다.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

귀포로 두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며, 소규모 학교는 제주시에 14개교, 서귀포시에는 10개교가 분포되어 있다.

나. 소규모 학교의 교육

농산어촌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는 교육의 질을 낮추는 주된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농산어촌 교육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의 교육 효과가 낮은 이유는 단순히 학교의 규모뿐만 아니라 주변의 교육여건과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대도시에 비해 열악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도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김에스더, 2017).

선행연구에 따르면 농촌 지역의 방과후학교 도입은 저렴한 비용으로 사교육비를 경감하여,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 양극화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방과후학교가 지역 간 학력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성취 향상에도 효과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김경근 외, 2011).

교육에서 나타나고 있는 도시와 농산어촌 간의 교육격차 실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도시와 농촌 간에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환경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농촌에 상대적으로 많은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영향과 빈곤 계층의 학생의 비중 또한 도시에 비해 높을 뿐 아니라 교육비 지출도 도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농산어촌지역의 학생들은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학생들보다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있으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중소 도시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보다 높은 학업성취도를 나타내고 있다(김경근, 2005).

둘째, 지역사회의 교육지원 환경이 도시와 농촌 간에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을 위한 문화시설이나 프로그램 등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농촌지역에서 사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농촌의 상황은 경제적 지원 능력이 있고 우수한 아동들의 도시 이주를 촉진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농촌의 교육환경을 악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셋째, 도시와 농촌 간에는 학업성취도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들은 상급학교로 갈수록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영어와 수학 교과에서 크게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농촌학생들의 경우 상급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성적 미달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두휴, 2011).

이와 같이 도시와 농촌 간의 학업성취도에서 격차뿐 아니라 학교나 지역사회의 교육여건, 가정의 교육지원환경에 있어서도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 양극화는 농촌에서 실시되는 교육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며, 약화된 농촌의 교육력은 남아있는 학생들의 가정환경이나 지원체제 등 지역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더욱 교육격차가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이두휴, 2011).

다. 소규모 학교 교육의 성과와 한계

학교의 규모는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수 중 하나이다(박삼철, 2012). 사회 통념상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교수-학습의 질을 높일 수 있고, 학생과 교사 사이의 친밀한 상호작용으로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하는데 용이하며, 학교 공동체를 형성하는 등의 교육적 강점이 있다고 인식된다(이동성, 2016).

대부분의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들은 학생 수 급감에서 비롯되는 행정적·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및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보다 소규모 학교 스스로 통폐합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세희 외, 2016). 이로 인해 지역문화의 구심점을 상실하고, 통학거리 증가에 따른 지역민 이주의 확대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김승재, 2004).

대부분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 복식학급 운영, 순회교사 및 상치교사 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임에 따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곤란한 수준이며, 학교 규모가 영세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곤란하거나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저해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오세희 외 2016).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학교의 노력으로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군 정책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학교군에 기초한 공동 교육과정 편성 운영함으로써 공동 교육과정을 통하여 한 지역사회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개의 소규모 단위 학교들을 하나로 묶어 통합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교수-학습에서의 다양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 사례로 장곡초등학교와 청라초등학교를 꼽을 수 있다. 먼저 장곡초등학교(2003)의 경우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며, 학생들의 특기

적성 신장 및 사회성, 교우관계 개선 등의 교육적 성과를 달성하였다. 청라초등학교(2004)의 경우 교수-학습의 효율성 증대 및 공동체 의식 함양,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수업의 질을 개선하여 학부모의 만족도 증가 등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과 동시에 두 학교는 공통적으로 공동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 부족과 학생 이동에 따른 안전문제와 불편함과 교구 및 기자재의 비효율적 관리, 폐쇄적 학교문화 등으로 공동 교육과정이 현실적인 한계와 제약이 따른다고 경고하고 있다(오세희 외, 2017).

농어촌의 교육문제는 어떤 특정한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상호 연계된 악순환적 작용으로 보고 있다. 농촌인구의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감소하게 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학교를 소규모화로 어렵게 만들어 통폐합이나 복식학급 문제를 양산하게 되어 농어촌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낮추어 도·농간 학력격차를 심화시켜 주민들은 농촌학교를 불신하게 되며 기회만 있으면 자녀들을 도시로 보내게 되어 결국 그로 인해 농촌인구의 감소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들게 된다고 할 수 있다(나승일, 2002).

2. 방과후학교의 주요 정책 추진과정

200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한 방과후학교 관련 주요 정책 추진 과정의 경향이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방과후학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등과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둘째, 2008년 이후 방과후학교 사업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하였으나, 정부는 방과후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취약 계층 및 지역의 방과후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넷째,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하고 우수한 민간참여(영리, 비영리 기관 및 단체, 개인 등)를 확대하고 있다. 다섯째, 평일 방과후(방과후~20:00)부터 토요일휴업일, 방학 등 방과후학교 운영 시간을 확대하고 있다. 여섯째, 학교의 방과후학교 업무를 경감하고, 효율화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일곱째,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정부, 교육청,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유관기관이나 단체의 지원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추진해 온 방과후학교의 주요 정책

은 다음과 같다.

<표 II-5> 방과후학교 주요 정책(2004~2012)

년도	주요정책사항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을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제내로 흡수하기 위한 주요한 대책으로 제시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8개 교육인적자원부 방과후학교 연구학교 운영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인적자원부 「방과후학교전담팀」 조직·운영 □ 280개 시범학교 운영(교육부 48, 교사대 및 교육청 시범학교 238개) □ 중학교에서 교과프로그램 지도 허용/초등학교는 교과관련 프로그램 지도 허용 □ 방과후학교 운영 전국적 실시(실시학교 98.7%, 참여 학생 42.7%) □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제도 도입 - 대학생 멘토링 지원사업 - 초등 방과후 보육 지원사업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프로그램 - 특기적성 프로그램 - 초등 보육 프로그램 - 성인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 방과후학교 페스티벌 개최(1회)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인적자원부 「방과후학교정책과」 설치 운영 □ 96개 교육인적자원부 시범학교 운영 □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시범 도입 운영(시도 교육청 7개, 지역교육청 10개) □ 방과후학교 페스티벌 개최(2회) □ 방과후학교 온라인행정시스템 개발 □ 방과후학교 영어원어민 강사 제도 도입 □ 한국교육개발원에 「방과후학교 정책연구센터」 설치하여 관련 연구 및 사업수행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개 교육과학기술부 시범학교 운영 □ 방과후학교 보직교사제 도입 □ 방과후학교 관리자(교장 등)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도입 □ 2008년부터 방과후학교 사업을 지방 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08년 2월에 개정. 지방교육재정보통 교부금 교부를 위한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방과후학교 주요사업(농산어촌 지원, 자유수강권지원, 학교내 보육 지원)을 반영하도록 함. - 부동산교부세를 활용한 초등보육 교실 운영 지원 재원 마련 □ 방과후학교 사업의 자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교과프로그램 지도 허용 - 방과후학교 영리업체 위탁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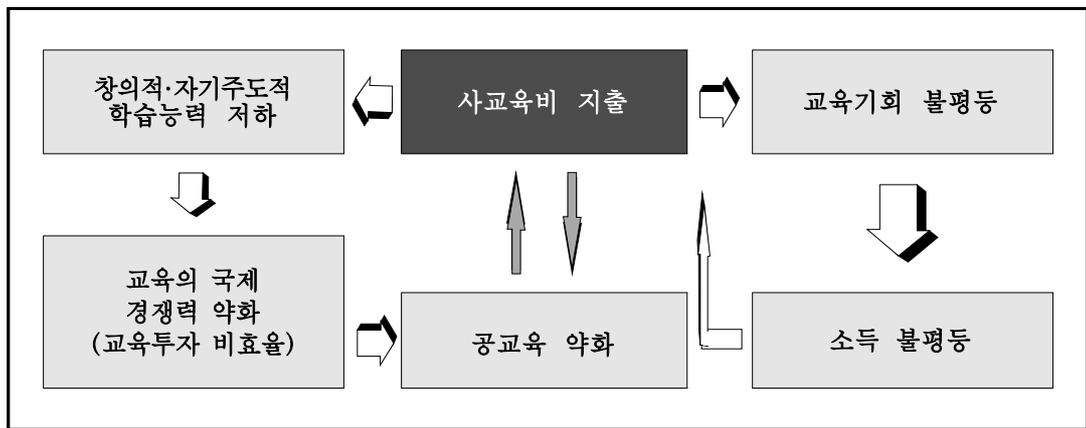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학교 지원 사회복지무원 제도 도입 □ 방과후학교 담당자 연수 프로그램 및 학생용 교수-학습 자료 개발 □ 방과후학교 국제사화 사업 추진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학기술부에 「방과후학교팀」 설치 운영 □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및 채용(4,000명) □ 10개 지자체·교육청 공동운영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공모 및 시범운영(9월~) □ 방과후학교 성과를 시·도교육청 평가 및 학교정보공시 항목에 반영 □ 밤 9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종일돌봄교실」 (346개교) 시행 □ 제1회 「방과후학교대상」 시상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학교 온라인 현황조사 시스템 개발 및 운영 □ 방과후학교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1차) □ 16개 시도교육청 방과후학교 담당자 협의체 구성 및 운영(6월~) □ 시도교육청 방과후학교 활성화 사업(2010. 10~2011. 5, 10개 지역) □ 제2회 「방과후학교대상」 시상 □ 방과후학교 차세대 나이스 시스템 개발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 발표(2011. 7) □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 수정·보완 및 보급(2차, 2011. 11 예정) □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시범운영(1년차, 1,000개, 2012.3~2013.2) □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시범운영 기관 공모 및 선정(2년차;2010.3~2011.2) □ 10개 지자체·교육청 공동운영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2년차;2010.9~2011.8) □ 지자체·교육청 공동운영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공모 및 시범운영(3년차;2011.9~2012.2, 24개 센터) □ 지역연합방과후학교 공모 및 시범운영(2년차;2011.7~2012.2, 16개 지역) □ 언론기관 참여 방과후학교 1차 시범사업 추진(1년차;2011.9~2012.2) □ 어린이 방송체험 영어교육 시범사업 추진(2011.4~12, 아리랑 TV) □ 언론기관 참여 방과후학교 시범사업 2차 공모 추진(2011.11) □ 제3회 「방과후학교대상」 시상(2011.12)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 운영 □ 토요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운영 □ 지역연합 방과후학교 구축 □ 방과후학교에 공신력 있는 언론(민간)기관의 참여 □ 학교 홈페이지에 「방과후학교」 개설

※ 출처: 박균달 외(2017: 363-365)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 2월 17일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였다. ‘2·17 사교육비경감 대책’은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제 내에 흡수하기 위한 단기

대책과 함께 학교 교육 내실화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담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6-27).

사교육비 부담은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교육적·사회적·국가적 폐해를 유발하여 공교육의 부실화 및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사회통합에 저해를 불러일으키며, 과도한 가계부담을 초래함으로써 학생의 정상적 발달에 방해가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그림 II-1] 사교육비 지출의 악순환 구조

※ 출처: 교육인적자원부(2004: 3)

사교육비의 발생원인으로는 학벌위주, 점수위주 진학경쟁, 학교의 교육 수요 미충족, 사교육기관의 기민한 대응 등 사회문화적·제도적·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그중 최근까지 대두되고 있는 원인 중 학벌위주는 능력보다 출신 학교가 성공을 결정한다는 학벌주의 사회풍토로 인해 모든 경쟁이 ‘일류대학’ 입학에 집중되어 ‘대학 서열화’와 맞물려 대학 입학에서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적 사교육이 확산 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통합교과형 출제방식에 의한 수능시험 제도로 사교육기관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해 졌으며, ‘내신 부풀리기’를 조장, 학교성적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수능성적 비중 확대를 초래하게 되는 시험점수·석차위주의 교육경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2004년 발표한 ‘2.17 사교육비경감대책’은 정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명칭과 내용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계속 추진되고 있다.



[그림 II-2] 분야별 추진과제

※ 출처: 교육인적자원부(2004: 10)

사교육비 경감 정책 추진방향으로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이 사교육의 근원적 해결책이라 판단하여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우수교원 확보 및 수준별 교육을 강화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을 높여 내신 중심의 대학 학생 선발을 유도, 대학입시에 예측된 고교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현존하는 사교육 수요는 공교육 체제 내로 흡수, 단기간 내에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이 가시화되도록 추진하기 위해 수능과의 대체로 EBS 수능방송 강의를 대폭 확대하여 인터넷으로 서비스함으로써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 수업과 EBS 방송 청취만으로 수능능력시험에 대비할 수 있게 하고, 전 학년에 걸친 자율학습 콘텐츠를 확보하여 인터넷으로 e-Learning

체제를 제공·지도하는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교육소의계층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단기적 대책으로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학교 내의 수준별 보충수업을 통해 교과 과외를 흡수하고, 교내 특기적성교육 활성화를 통해 재능·영어 과외를 충족시키며, 초등학교 저학년은 '방과후교실' 운영을 통해 탁아 수요를 흡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사회제도·문화·의식개혁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가장 비중을 두고 추진한 EBS-TV와 인터넷 망을 이용한 e-Learning 체제 구축과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학교 내의 수준별 보충수업과 교원 평가제 등은 학교 현장뿐만이 아니라 사교육 현장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2011년 7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강사의 질을 높이고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돌봄기능을 강화하며, 행정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학교 및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은 지난 2006년 이후 늘어난 방과후학교 현황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문제점과 애로요인 등을 보완해 방과후학교의 질적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교원,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2011년 이전의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필요에 따른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활동으로 학교의 특색을 만들고 학교교육을 학생과 학부모 필요의 관점에서 재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주요 학교 교육활동으로 정착했으며, 취약계층의 학습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학교를 통한 돌봄 서비스 제공도 크게 확대하였다. 그러나 방과후학교는 사회변화에 따른 학교의 역할 확대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방과후학교의 정책 취지나 목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부족해 방과후학교를 부가적인 업무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방과후학교로 인한 교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은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김훈기, 2006; 조미영, 2009).

2011년 7월 28일 강원타임즈에 기재된 교과부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 발표에 따르면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을 정착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위와 같은 성과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사교육 수요가 가장 많은 학년 초에 정규수업과 같이 방과후를 시작하도록 방과후 연간 운영계획을 3월 이 전에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토요일과 방학 중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가정통신문으로 제공하던 방과후 관련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의 '방과후' 쪽에 강좌 정

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학생의 특기적성과 진로진학 등을 고려해 방과후학교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일부 학교에서만 기록하던 방과후 활동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방과후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질 제고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방과후학교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학부모가 참여하는 소위원회 설치를 권장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적 기업, 공신력 있는 언론기관 참여 EBSe, 아리랑 TV, IPTV를 활용하는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다각화하고 질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다. 특히 교원대 및 예체능대 졸업생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권장하고, 지원받아 설립한 사회적 기업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우선 위탁하도록 하여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비와 연수비, 운영비등을 지원하고 있다(강원타임즈, 2011.07.28.).

우수강사 발굴 및 역량강화를 위해 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강사 풀을 재정비하고 교육과학기술부를 활성화하여 방과후학교 강사를 적극 발굴·활용하는 외부강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MBN)을 활용한 외부강사 연수를 실시하였다.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돌봄기능 강화를 위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2013년까지 차상위계층 전부를 월 5만원(연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 진로, 상담 등 종합적 지원방안을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강사 확보가 어려운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강사료에 교통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생 이동수단 제공 및 아리랑 TV, EBSe, IPTV 등과 같은 우수 콘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돌봄 수요가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초등돌봄교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자체와 연계해 온종일 돌봄교실로 전환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돌봄교실을 2011년 6천5백 교실에서 2012년 7천 교실, 2013년 7천4백 교실로 확대하고 온종일 돌봄교실을 2011년 1천 교실에서 2012년 2천 교실, 2013년 3천 교실로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다(강원타임즈, 2011.07.28.).

방과후학교의 지원·관리체제의 개선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단위학교의 방과후학교를 지원하고 지역 내 방과후학교의 수요와 공급의 연결체계가 되도록 하였으며,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인한 교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행정 전담인력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 배치하였다. 또한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에

‘방과후학교 사업 지원’을 신설해 농산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의 운영 지원하고 토요 방과후학교와 토요 돌봄교실 운영과 행정 전담인력 확보 등에 활용하도록 하였다(강원타임즈, 2011.07.28.).

2012년 주 5일 수업제의 전면 자율 도입에 대비해 15개 권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 연합방과후학교를 학교 간 연계, 교육청 또는 방과후학교지원센터 단위, 거점학교 운영 등 다양한 운영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하였다. 특히 교육청 중심은 충북 단양군과 강원도 화천군,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중심은 부산과 광주로 하였다(강원타임즈, 2011.07.28.).

이밖에 토요 돌봄교실과 토요 방과후학교를 확대해 저소득층 자녀나 맞벌이 부부 자녀들의 토요 돌봄 및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였으며,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보통교부금에 토요 방과후학교와 토요 돌봄교실 수요를 반영해 지원하기로 하였다(강원타임즈, 2011.07.28.).

김연석 교과부 방과후학교 팀장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은 8월 중 시도교육청별 추진계획을 수립해 오는 9월부터 단위학교에 적용할 계획”이며 “이번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은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학교공동체의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방과후학교가 더욱 활성화되고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강원타임즈, 2011.07.28.).

3. 제주도내 방과후학교 현황

2018년 제주도 방과후학교 기본 계획에 따르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경험 제공을 통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예체능, 교과 등 사교육 수요를 흡수 대체하여 사교육비 경감과 동지역 저소득층과 읍면지역 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하고자 하며, 지역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학교 실현의 목표를 지향한다.

학교의 장이 학교 인적·물적 여건과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학교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프로그램을 무리하게 개설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참여에 있어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강제적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8).

2016년 12월 20일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공교육정상화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특별법으로 제정되었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8).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적용의 배제) 법 제1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서 이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말하며, [대통령령 제25591호(2014.9.1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8년 2월 28일까지 유효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교육정상화법」 등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2018년 2월 28일로 일몰되어 2018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운영할 수 없다. 제주도는 영어 방과후학교 일몰에 따라 방과후학교가 위축되지 않도록 1~2학년 학생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예체능 프로그램 개설·운영 및 3~6학년 영어 방과후학교에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등 능동적 대처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8).

중점추진과제로는 학생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하고자 학생 수요에 맞는 질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함으로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강사, 수준 등)로 영역별, 수준별, 무학년제 프로그램 개설하며, 학생들의 흥미·적성을 고려한 특기적성, 소질개발 프로그램 개설하여 학생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8).

실험, 실습, 토론, SW 관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중학교) 자유학기 활동(진로탐색, 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과 연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진로개발 및 심화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창의융합형 사고력 향상 등 신수요 프로그램을 운영 한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8).

학생의 다양한 흥미·적성을 반영한 동아리와 연계하여 학생 주도적인 프로그램 개설 교육과정 내 동아리 연계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외 자율동아리 연계 프로그램(오케스트라, 연극, 스포츠 등) 프로젝트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다양한 주제를 학생이 선택 자료수집 → 분석 → 결과 → 발표 과정으로 진행되는 동아리 연계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한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8).

학교 전통으로 이어갈 수 있는 예체능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 합의 후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한 학생이 재학기간 중 꾸준히 수강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한다. 예를 들어 1-2학년 초급반 → 3-4학년 중급반 → 5-6학년 심화반의 형태로 실시한다. 전통예술·문화, 예체능 프로그램인 경우 전액 지원 가능하지만 단위 학교에 지원된 교육청 총 지원액을 고려하여 전통예술, 문화, 예체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8).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지원을 강화하여 자유수강권 지원에 대한 대상을 1순위에서 3순위로 나뉘어 지원되며, 1순위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대상자와 올해부터 추가되는 특수교육대상자(일반학급에 편성), 북한이탈주민자녀,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를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하였다. 2순위는 소득 등에 따라 지원되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3순위에는 다자녀가구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며, 다자녀가정의 자녀는 나이와 상관없이 첫째부터 지원된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8).

지원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60만원 내에서 수강료를 지원하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범위는 본교, 타교, 공공기관 운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좌를 지원하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강사료, 교재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 및 방과후학교 과정 내의 현장학습 및 체험활동 경비(입장료, 대여료, 교통비) 지원이 가능하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8).

지원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자유수강권 신청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학년도 말까지 지원되며, '18 저소득층 지원대상 확정 전(3~5월) '17 기존 지원대상자(기준:'18.2.28) 1, 2순위에 한해 3~5월분 수강료 지원(15만원 한도) 함으로 지원대상이 될 때까지 방과후학교 수강료 징수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또한 법정자격 대상자(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는 심사 완료 시까지 학부모 스쿨뱅킹 계좌에서 수강료 인출 유예 등을 통해 배려하였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8).

방과후학교의 목적인 농어촌 학교의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 및 도·농간 교육 격차 완화하였고, 농어촌 지역 103교(분교포함)를 지원학교로 정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른 강사비(보전), 운영비,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및 학교의 자율에 의해 강사 교통비 지원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희망하는 학생 수가 적거나 특별 시설·설비가 필요하여 단위학교별로 개설이 곤란한 일부 프로그램은 인접학교와 협력 운영(강사 공동채용, 타교 수강 희망학생 수용 등)하는 농어촌 방과후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농어촌 지역학교당 5,000천원을 추가 지원하며, 농어촌 내 소규모 학교(9학급

이하)에 교당 6,000천원을 지원하고, 10학급~19학급 이하에는 교당 4,000천원을 추가 지원한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8).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은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장학마당/방과후학교/사이버업무지원을 통한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 개인외부강사 선정 절차, 계약 관련 절차와 내용, 회계 관리 등을 통해 방과후학교 사이버 업무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방과후학교 수강과목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게 하여 수요자 편의를 증대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결과를 토대로 수강자를 선정(추첨)하여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업무 효율성 증대 목적으로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방과후학교 신청 메뉴를 이용한다. 방과후학교 교무지원 인력 배치로 방과후학교의 원활한 운영 및 업무지원을 위해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8).

학교 밖 지역사회(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방과후마을학교 운영으로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 및 방과후학교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기간 2018년 03월~11월에 사업자를 공모하여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예산은 특별교부금에서 104,000천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 지방계약법을 준수하고 비영리 법인만 업체위탁이 가능하며, 영리법인은 업체위탁에서 제외된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8).

전국의 방과후학교 운영현황은 2016년 4월 30일 조사기준으로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통계 자료가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고,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2018년 4월 중순쯤 등재할 계획이라고하여 전국의 2016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표를 사용하였다.

<표 II-6> 전국 2016년 방과후학교 운영학교 및 참여 학생 현황

학교급	내용	운영학교수 (교)	비율 (%)	참여 학생수 (천명)	비율 (%)
초		6,204	99.8	1,761	65.9
중		3,228	99.6	684	46.9
고		2,343	99.7	1,203	68.7
계		11,775	99.7	3,648	62.1

※ 출처: 교육부(2017)

전국 방과후학교 전체 참여율은 62.1% (초65.9%, 중46.9%, 고68.7%)로 제주의 전체 참

여율 64.8% (초68.8%, 중38.8%,고80.7%)보다 2.7%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방과후학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개 수업, 외부강사 수업 평가 및 연수 참여 의무화, 운영 만족도 결과 강사 재계약시 반영 등 방과후학교 내 실화에 꾸준한 노력과 예체능 프로그램, 초등돌봄교실, 자유수강권 지원 등에 예산 지원 확대와 함께 2011년 시도교육청 평가 보상을 1인 1악기 다루기, 스포츠클럽 활성화 등에 예산을 투입한 결과로 보인다(헤드라인제주, 2013.12.20.).

<표 II-7> 제주도 2017년 방과후학교 참여율

학교급	내용	참여학교수	총학생수	참여 학생수	프로그램수	참여비율 (%)
초		112	38,940	26,780	4,138	68.8
중		45	19,611	7,618	1,307	38.8
고		30	22,396	18,081	3,080	80.7
계		187	80,947	52,479	8,525	64.8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8)

제주도 방과후학교 전체 참여율은 64.8% (초68.8%, 중38.8%,고80.7%)로 전년66.9%(초71.2%,중44.3%,고80.2%)대비 2.1p 감소하였으며, 특히 2015년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정책 추진 후 크게 감소하였다.

2015년 2월부터 실시한 제주 교육청이 추진한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은 이석문 교육감의 주요 공약으로,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아침밥을 먹고 등교할 수 있도록 등교시간을 늦추는 것이 골자다. 2017년 5월~7월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 전국 9,022명을 대상으로 주관적 웰빙·관계·건강·교육 등 청소년 행복주관 지표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제주 학생들의 행복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행복지표 모든 영역에서 평균점수 상위점수를 얻었으며,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 중 ‘전반적 삶의 만족도’와 ‘즐거운 정서 상태’가 각각 7.41점, 4.18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행복한 정서 상태’는 4.04점으로 전국 2위, ‘편안한 정서 상태’는 3.72점으로 전국 3위를 차지했다. 건강 영역에서 제주는 ‘전반적 건강 만족도’는 7.75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아침 식사율’인 경우 5.42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15년부터 제주 교육청이 추진한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도교육청은 평가했다(국제

뉴스, 2018.01.02.). 하지만, 등교시간이 9시로 미뤄지고 아침에 실시하는 0교시 프로그램이 폐지되면서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감소하게 되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과 0교시 폐지 등의 정책과 맞물리면서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인 방과후학교 참여율 하락은 전국적인 사안"이라며 "일부 학부모·학생 사이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보다 학원을 선호하는 경향도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제민일보, 2017.08.02.).

<표 II-8> 전국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 분		초	중	고	계
교과	수(개)	59,257	43,689	135,970	238,916
	비율(%)	26.6	58.5	87.1	52.7
특기적성	수(개)	163,271	31,023	20,181	214,475
	비율(%)	73.4	41.5	12.9	47.3
계	수(개)	222,528	74,712	156,151	453,391

※ 출처: 교육부(2017)

전국의 방과후학교 운영학교수는 2016년 기준 6,204개교로 1,761천명의 초등학생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교과영역은 59,257개(26.6%), 특기적성은 163,271개(73.4%)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교육부, 2016).

<표 II-9> 제주도 2017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

초		중		고		계	
교과	특기적성	교과	특기적성	교과	특기적성	교과	특기적성
14.9%	85.1%	64.7%	35.3%	90.2%	9.08%	49.7%	50.3%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8)

제주도는 전국의 1.8%에 해당하는 112개교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의 1.52%에 해당하는 26,780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표 II-9> 제주도 2017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2016년도 교과 52.2%, 특기적성 47.8%에서 2017년도 교과 49.7%, 특기적성 50.3%로 특기적성 비중이 증가 하였다. 특히 초등학교는 교과

14.9%, 특기적성 85.1%로 특기적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고등학교는 교과중심으로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입을 준비해야 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영역의 방과후학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교입시 준비하는 중학교의 경우에도 전국(교과58.5%, 특기적성 41.5%)에 비해 교과영역(64.7%)의 방과후학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0> 전국 방과후학교 만족도 현황

연도	학생				학부모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2016	89.7	84.3	73.9	84.8	86.8	84.7	75.4	83.6
2015	88.8	81.6	72.2	83.1	85.7	82.2	73.4	81.9
2014	87.5	76.9	68.7	80.7	84.4	77.7	70.8	79.7
2013	86.1	74.5	64.9	78.7	83.1	76.2	67.8	78.1
2012	83.8	70.0	63.0	75.8	80.8	72.4	65.9	75.4
2011	82.0	67.0	61.7	73.8	79.2	70.0	64.8	73.7

※ 출처: 교육부(2017)

전국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만족도는 89.7%로 제주의 86.3%보다 3.4%가 높게 나타났다. 제주 중학교의 경우 연합고사 합격 커트라인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향상을 위해 강제성을 띤 참여 형태이며,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 사교육이 취약하기 때문에 더욱 강제성을 띠게 되어 만족도 하락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제주도민일보, 2015.01.19.).

<표 II-11> 제주도 2017년 방과후학교 학생 만족도 현황

구분	설문 응답자	빈도수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초	9,804	5,592	2,866	1,175	116	55	86.3%
중	3,252	1,583	876	583	124	86	75.6%
고	3,180	953	982	737	321	187	60.8%
계	16,236	8,128	4,724	2,495	561	328	79.2%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8)

2017년도 방과후학교 학생 만족도는 79.2%(초86.3%,중 75.6%,고60.8%)로 전년81.4%(초 88.9%,중75.7%,고66.3%)대비 2.2p 감소한 것이다.

제주도 초등학교 119개교 중 읍지역에 66개교(55.5%), 면·도서·벽지지역 3개교(2.5%), 시지역에 50개교(42.0%)가 분포하여 있다. 제주도 전체 초등학교의 58%가 읍면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시지역에 비해 원활하지 못한 강사 수급으로 다양한 강좌 개설이 어렵고, 개설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매년 바뀌는 강사로 인해 학생들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이자형, 2011; 백경아, 2008).

<표 II-12> 제주도 2017년 방과후학교 학부모 만족도 현황

구분	설문 응답자	빈도수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초	2017	11,090	5,032	4,397	1,480	163	18	85.0%
중	2017	3,920	2,031	1,059	694	90	46	78.8%
고	2017	3,965	1,305	1,215	948	291	206	63.6%
계	2017	18,975	8,368	6,671	3,122	544	270	79.3%

※ 출처: 교육부(2017)

<표 II-12>에서 알 수 있듯이 방과후학교 학부모 만족도는 79.3% (초85.0%,중78.8%,고 63.6%)로 전년82.6% (초88.5%,중78.8%,고70.3%) 대비 3.3p 감소하였다.

제주도 초등학교 119개교 중 읍지역에 66개교(55.5%), 면·도서·벽지지역 3개교(2.5%), 시지역 에 50개교(42.0%)가 분포하여 있다. 시지역의 경우 교통이 편리하여 강사 섭외가 자유로워 다양한 강좌가 개설될 수 있지만, 읍지역과 면·도서·벽지지역은 지리적 여건에 따라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함으로 원활한 강사 수급이 어렵고, 수강인원의 한계가 있어 다양한 강좌 개설이 어려워 한정적인 강좌로 운영되고 있다(이자형, 2011; 백경아, 2008).

엄마들이 방과후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공교육 안에서 이루어져 능력이 검증된 선생님 들로부터 안전하고 평등하게 교육받는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박효정, 2014: 89). 방과 후학교 운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조사에서 학부모들은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유능한 외부강사 확보, 행·재정적 지원 확대를 높게 인식하였다(백경아, 2008). 하지만 제주도는

전체 초등학교의 58%가 읍면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농산어촌 지원제도로 행·재정적 지원은 많으나 시지역에 비해 원활하지 못한 강사 수급으로 다양한 강좌 개설이 어렵고, 개설된다 하더라도 강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고, 매년 바뀌는 강사로 인해 학부모 또한 방과후학교에 대한 믿음이 하락하게 되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017년 현재 A초등학교는 9개학급, 전교생이 161명으로 제주시교육청 관내 학교 중 농어촌역에 위치한 학교로 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내용 중 농어촌 내 소규모 학교(9학급 이하)에 해당되는 소규모 학교로 방과후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강좌는 7개강좌(영어, 플루트, 미술, 클레이, 난타, 컴퓨터, 바이올린)를 운영하고 있다. A초등학교는 농사나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많으며 학부모의 방과후학교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다. 학교 주변은 읍·면단위의 농촌지역으로 가정과 학교 주변에 교육 문화 시설이 부족하고 학교교육 의존도가 높다.

A초등학교 홈페이지에서 2017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실시한 A초등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91.05%로 제주전체의 만족도 86.3% 보다 4.75% 높았고, 전국의 89.7% 보다 1.35%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표 III-1> A초등학교 2017년 방과후학교 만족도(학생) 조사 결과 만족도 내용을 살펴보면 만족도는 상반기 91.5%, 하반기에는 94.3%의 만족도가 나왔지만, 계속 참여 의사에는 상반기 88.1%, 하반기에는 85.7%로 상반기 만족도보다 2.4% 감소하였으며, 전국의 만족도보다 4%, 제주의 만족도보다 0.6% 낮은 만족도 결과를 나타냈다. 이에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재수강 여부에 대한 만족도가 하락한 것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A초등학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표 III-1> A초등학교 2017년 방과후학교 만족도(학생) 조사 결과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총계
만족도	상반기	42	12	5	0	0	59
		91.5%		8.5%	0%	0%	100%
	하반기	45	21	4	-	-	70
		94.3%		5.7%	0%	0%	100%

특기적성 계발에 도움	상반기	38	14	7	0	0	59
		88.1%		11.9%	0%	0%	100%
	하반기	43	24	3	-	-	70
		95.7%		4.3%	0%	0%	100%
학업실력 향상에 도움	상반기	34	17	7	1		59
		86.4%		11.9%	1.7%	0%	100%
	하반기	45	24	1	-	-	70
		98.6%		1.4%	0%	0%	100%
계속 참여 의사	상반기	36	16	6	1	0	59
		88.1%		10.2%	1.7%	0%	100%
	하반기	43	17	10	-	-	70
		85.7%		14.3%	0%	0%	100%

※ 출처: A초등학교 홈페이지 (2017년 11월)

A초등학교는 농어촌 지역 중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참여 경험이 다양한 연구 참여자들을 선정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면담으로 이루어지는 연구 특성상 의사표현이 가능한 5~6학년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2년 이상 참여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표 III-2>와 같이 5학년 5명, 6학년 5명으로서 남학생이 4명, 여학생이 6명이며, 참여 중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1~4개 과정이며 영어, 컴퓨터, 미술과 음악관련 프로그램의 수강이 많았다.

<표 III-2>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참여자1)	성별	학년	참여중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참여기간
김바람	여	5학년	플루트, 미술	5년
한소리	여	5학년	바이올린	2년
정바다	여	5학년	미술, 클레이아트	5년
고바위	남	5학년	영어, 컴퓨터	5년
이차돌	남	5학년	영어, 컴퓨터	5년
진국화	여	6학년	바이올린	2년
한장미	여	6학년	영어, 컴퓨터, 플루트, 난타	2년
고매화	여	6학년	영어, 컴퓨터, 플루트	6년
최구름	남	6학년	컴퓨터	3년
현나무	남	6학년	영어, 컴퓨터	3.5년

1) 학생들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가명 사용함.

본 연구는 초등학교 현장에서 농어촌 지역 방과후학교 의미를, 주로 방과후학교 이용주체인 학생의 소리를 통해 전달하기 위해 제주도 읍·면단위에 소재한 A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1차, 2차에 걸쳐 학교 도서관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 전 예비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문제를 설명한 뒤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고 녹취를 허락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의 도구는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의 참여 동기를 밝히기 위해 교육현장의 교원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반구조화된 질문 항목을 제작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의 참여 동기, 의미, 문제점,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집단 면담을 실시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 문항들은 아래 표<Ⅲ-3>와 같다.

<표 Ⅲ-3>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의 참여 동기, 문제점, 의미, 활성화 방안 질문

질문항목	질문내용	비고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의 참여 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형태(자발적, 주위권유) 	개방형
방과후학교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학교 참여 동기 및 동기 변화 정도 • 방과후학교와 정규수업과의 차이 • 방과후학교와 사교육(학원)과의 차이 • 방과후학교를 통한 경험의 변화 	개방형
방과후학교 교육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의 다양성 • 프로그램 선택 시 애로사항 • 프로그램 참여 시 느끼는 문제점 	개방형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만족도(만족이나 불만) 	개방형

어린이들과의 면담은 집단면담이 효과적일 수 있는데 이는 대화를 자극시키고 한 사람의 생각이나 주장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반박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공해 주는 등 개인 면담에 비하여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견이 포함된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김영천, 2006). 집단면담은 개인의 깊이 있는 내면의 소리를 끌어내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으나, 연구자와의 라포형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의 개별면담보다는 공통분모가 있는 또래 학생이라는 라포가 형성된 집단면담이 더 솔직한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다(이자형, 2011).

연구참여자는 방과후학교에 2년간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로 8명을 선별하였으나, 친구를 따라 온 두명의 학생이 집단면담에 참여하게 되어 최종 10명의 학생으로 두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내용은 녹음되었다.

학생 4명은 평일에 시간이 되지 않아 2017년 11월4일부터 25일까지 4주간의 주말을 이용하여 각자의 집에서 두 시간 가량 편안한 분위기에서 개별면담으로 진행되었으며, 면담 내용 중 보충이 필요한 경우 유선이나 메일을 이용하였다. 6명의 학생은 면담전 학생들의 어머니와 사전에 만나 연구목적과 면담 내용에 대해 설명 하였고, 어머니가 학생에게 전달 한 후 면담이 진행되었다. 집단면담은 2회에 걸쳐 실시되었고, 첫 번째 면담은 집단면담으로 진행하였고, 두 번째는 보충면담으로 진행하였다. 1차면담은 2017년 11월 17일(금) A초등학교 도서실에서 16시부터 17시까지 60분간 진행되었고, 일주일동안 면담 내용을 정리하면서 보충면담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11월 24일(금) 2차면담을 A초등학교 도서실에서 16시부터 16시35분까지 35분간 진행하였다.

면담을 통한 연구방법의 타당성을 위해서 삼각기법(triangulation)을 활용하였으며, Patton(1980)이 제시한 방법의 삼각기법(methods triangulation), 자료의 삼각기법(triangulation of sources), 분석자의 삼각기법(analyst triangulation), 이론/관점의 삼각기법(theory/perspective triangulation)의 4가지 중 자료의 삼각기법(triangulation of sources)을 활용하였다. 자료의 삼각기법(triangulation of sources)은 면담 참여자의 답변을 확실하게 하는 프로그램 관련 서류와 기타 문서화된 증거를 비추어 면담 내용을 점검하는 방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면담을 통한 연구분석에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A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관련 문서와 학교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면서 면담에 응한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수업의 관찰과 수시로 면담 참여자와 비공식적 면담을 수행함으로써 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3. 자료처리

A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2년 이상 참여하고 있는 5~6학년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의 참여 동기, 의미, 문제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면담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녹음된 면담 자료를 전사하고 면담한 자료 내용분석을 위해 개방 코딩 과정을 거쳤다. 개방 코딩은 수집된 자료를 모두 검사하고 비교하여 개념화시키고 범주화하는 과정으로 자료를 해석하고 근접하여 있는 개념을 명명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박성희, 2004).

<표 III-4> 질문항목별 코딩 결과

구분	1차 코딩	2차 코딩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의 참여 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 • 흥미와 재미 • 취미 	자발 vs 타의의 대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의적 (부모권유, 용돈) • 자격 취득 	
방과후학교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끼와 재능 발견 • 소질계발이나 취미활동 • 학교 수업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우는 곳 	유의미한 시간 vs 교과보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실력 향상 • 자격 취득 	
방과후학교 교육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성 • 흥미 • 취미 	자율 vs 의무감의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하는 프로그램의 부재 • 엄마의 강요 • 놀고 싶은 마음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수준과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설 • 잦은 강사교체에 따른 해결방안 모색 • 교과와 연계된 놀이식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하는 아이들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의 참여 동기, 의미, 문제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료를 각 항목별로 분리하고 같은 범주에 해당하는 내용별로 분류한 후 각 답변 내용에 대해 분석하고 각 범주별로 대립 코딩을 이용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대립 코딩은 자료 안의 대립을 드러낼 수 있는 코드를 부여하는 전략으로 'VS', '대'와 같은 어휘를 중심으로 대립되는 두 항을 배치하는 코드를 사용하여 자료 안에 있는 갈등을 드러낼 수 있는 코드를 구성하는 전략이다(김영천, 2016). 같은 범주에 해당하는 내용별로 분류하기 위해 각 문장을 읽고 핵심이 되는 단어를 찾아낸 후 같은 핵심어들끼리 모아 분류하고 각 분류에 알맞은 범주명을 작성하였다. 범주 분류를 완료 후 내용들을 다시 검토해 해당 범주의 내용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답변 내용 중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한 문단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각각의 결론들을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제주 농어촌 지역 방과후학교의 의미는 농어촌 지역 초등학생에게 특히 요구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이들이 방과후학교 참여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농어촌 지역 방과후학교가 지향해야 하는 미래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실마리를 제시하였다.

4.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도

질적 연구에서는 타당성과 신뢰도를 연구의 업적성 또는 연구의 진실성이란 개념으로 사용한다. 연구진실성이란 연구 행위의 특성을 나타내거나 연구 행위에 대하여 평가를 내린 것을 말하며, 연구에서의 진실성 확보를 우선시함을 의미한다. 연구진실성은 타월성, 신뢰성, 합법성 등과 같은 기준에 의해 책임 있는 연구를 증진시키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연구 진실성은 정직, 공정성, 연구 지침이나 정책의 준수와 같은 전통적인 이상과 연구자로서 자신의 저작물을 자신의 삶의 경험과 가치에 통합하는 목표를 포함한다(이인재, 2010).

Creswell과 Miller는 질적 연구 수행에 있어서 타당성 제고 기법들은 연구의 근거를 확고히 하기위해 연구자가 선택한 렌즈, 연구자의 패러다임 가정에 의하여 선택이 결정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Creswell & Miller, 2000).

연구자 렌즈를 고용한 질적 연구자는 자신의 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주제, 분류, 설명, 해석들이 이해될 만한 것인가를 원자료를 지속적으로 참조하며 검토하여야 한다(Patton,

1990). 이와 같이 연구자, 주제, 그리고 이해 가능하게 만드는 과정 등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반성적 설명으로서의 타당도라고 한다(Altheid & Johnson, 1998).

본 연구자는 2년 동안 A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면서 교사의 관점과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서의 관점, 실제 방과후학교 강사와 학생들의 출결과 수업 진행사항을 관찰하고, 공개수업, 방과후학교 발표회 등을 진행하면서 담당자로서의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었으며, 학생, 학부모, 교사, 강사와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얻어낸 지식을 바탕으로 참조하고 검토하였다. 또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두 번의 면담을 실시하였고, 첫 번째는 집단 면담으로 진행하고, 면담 내용을 정리하면서 추가 면담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 면담을 진행하였다.

5. 연구윤리성 확보를 위한 노력

면담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목적과 과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 참여자가 면담 과정에서 특별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원할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렸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연구 참여자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하였으며, 경험 내용과 기타 자료들은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연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모든 데이터는 비밀번호가 있는 녹음파일로 보관하고 연구 참여자 개인 신상에 대한 어떠한 정보나 자료도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을 것임을 재 안내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사교육비 경감과 지역 소득 간 교육격차 해소라는 측면에서 추진되어 온 방과후학교의 목적이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농어촌 지역의 초등학교 현장에서 방과후학교 의미를 방과후학교 이용주체인 학생의 소리를 통해 전달하고자 A초등학교 5~6학년 10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참여 형태, 방과후학교의 의미, 방과후학교의 문제점,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 참여 형태: 자발 vs 타의의 대립

동기란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내적인 직접요인의 총칭한다. Alderman(1974)은 동기를 모든 행동에 대하여 실행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스위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정서를 일정하게 활성화된 수준까지 발생시켜 실행하고자 하는 과제를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김선희, 2012: 24에서 재인용).

방과후학교 운영의 목적은 특기적성, 교과 프로그램 및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교 교육 기능을 보완하고 보육 등 질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밖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여 사교육비 경감을 꾀하는 데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b). 이런 방과후학교 취지가 학생들의 참여 동기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참여 동기를 묻고 자발적 참여인가 부모님이나 친구 등 주위 권유에 의한 참여인가를 질문하였고, 연구 참여자들의 답변에 따라 이유를 묻는 등의 추가 질문이 이루어졌다.

김바람: 저희 부모님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부모님이 마음대로 시키지 않으시고 제 마음에 드는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흥미 가는 것만 수강했고, 친구에게 같이 하자고 권유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연구자: 왜 잘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나요?

김바람: 친구들도 자기만의 생각으로 재밌고 흥미가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때문에 저와 같이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거 같아요. 저도 제 스스

로 프로그램을 선택했으니까요.

한장미: 제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시켜서 하거나 친구 따라 하는 건 바보 같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내가 재밌고 내가 하고 신나고 이익이 되는 일을 해야지 그런 한심한 짓은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연구자: 왜 한심하다고 생각하나요?

한장미: 내가 원치 않은 일을 했을 때 당연히 흥미가 떨어지고 재미가 없잖아요. 오히려 내 선택이 아닌 다른 선택을 따르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최구름: 부모님은 뭐 하라구 안 해요. 난 하고 싶은 거 하는데 흥미 가는 걸 하는 편이에요.

연구자: 흥미 가는 거라면 어떤 걸 말할까요?

최구름: 내가 필요한 거 하고 싶은 거 그런 거.

정바다: 난 클레이아트가 좋아요. 그래서 그냥 클레이아트 수강해요. 방과후엔 엄마가 공부 아니고 노는 거 하는게 맞대요

참여자 김바람, 한장미, 최구름, 정바다는 프로그램 선택 시 재미와 흥미가 있는 프로그램을 자발적 참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바람의 답변 중 친구와 함께 하고 싶어 권유하였지만 함께 한 친구는 없었다고 답한 것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체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장미는 부모님이나 친구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은 원치 않은 것을 해야 하므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였다. 최구름은 남자 학생 중 유일하게 자발적 선택을 하는 학생이다. 정바다의 경우 좋아하는 것이 확실하였고, 방과후학교에서는 학교 수업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있다고 하였다. 자발적 의지가 가장 강한 참여자들은 면담의 답변 또한 본인의 생각을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성향을 보였다.

한소리: 엄마랑 상의해서 결정해요 근데 엄마가 하라는 것보다 내가 선택하는 거 해요 그냥 상의만 해요.

고매화: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아서 플루트, 영어, 컴퓨터 하는데요. 컴퓨터는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한 거고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해요.

연구자: 엄마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할 땐 재미나 흥미가 생기나요?

고매화: 이거 하면 다른 거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냥 하긴 하는데 따분하고 싫긴 해요. 근데 자격증 딸 수 있다가 하긴 해요.

진국화: 부모님과 상의해서 선택하지만, 결정은 내가 원하는 걸 택하고 있어요.

참여자 한소리, 고매화, 진국화는 부모님과 상의는 하지만 본인의 생각으로 프로그램을 선택한다는 의견이었고, 부모님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나정도는 수강하지만, 이 또한 컴퓨터 자격증의 필요성에 대해 알고 있어 자기계발을 위해 선택한 경우라 볼 수 있다.

이차들: 엄마는 컴퓨터랑 영어를 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나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연구자: 왜 들어야 할 것 같을까요?

이차들: 영어학원도 안 다니는데 방과후학교는 수강료도 저렴하고 영어도 배울 수 있고, 컴퓨터 배울 데가 주변에 없는데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자격증도 딸 수 있으니까요. 엄마가 그러는데 배우는 건 좋은 거래요.

고바위: 영어랑 컴퓨터 듣는데 나는 축구하고 놀고 싶은데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해요. 난 축구나 친구들과하고 노는 게 좋아요. 근데 안 하면 용돈도 없으니까 그냥 들어요.

연구자: 많이 놀고 싶을 텐데 수업 듣기 힘들지 않아요?

고바위: 영어시간엔 오히려 자요. 근데 컴퓨터 시간엔 안 돼요. 연습 안 하면 혼나는데 연습 다하면 게임시켜줘요. 할 땐 싫은데 자격증 따니까 좋아요.

현나무: 방과후학교엔 왜 축구, 배드민턴, 농구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엄마가 영어는 꼭 하래요. 컴퓨터도 그래서 그냥 해요.

연구자: 엄마가 권해서 하게 되면 수업들을 때 어떤가요?

현나무: 창문보다 멍~ 하다 와요. 영어시간엔 진짜 하기 싫어서 장난도 치다가 혼나기도 해요.. 근데 컴퓨터 선생님은 많이 무서워요. 근데 시키는 거 다하면 게임할 수 있게 해서 빨리하고 노는데 이번에 한글 자격증 따서 좋아요.

참여자 고바위, 현나무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정적인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부모

님의 권유로 수강하는 학생들 중 컴퓨터 수강 시 얻을 수 있는 자격증에 대해서는 보람을 느끼는 듯하였으며, 강사의 수업방법에 따라 수동적 참여임에도 수업 참여도가 좋음을 알 수 있었다.

참여 형태에 관련한 면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참여한 학생들의 대부분이 부모님과 상의는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2명 정도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 수강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선택의 기준에 있어 영어는 학교 과목에 있어 실력 향상을 기대하며 수강하는 학생과 취미와 흥미를 기준으로 하는 학생이 있었으며, 부모님의 권유로 수강하는 학생들은 2명에 불과했다. 홍후조 외(2005)의 연구에서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은 방과후학교 참여 이유로 ‘나의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기 위하여’가 24.4%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성열관과 민부자(2007)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보다는 자신의 의지와 교우관계의 영향을 더 받아 자신의 의지에 의해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동기를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은 동기가 학습자의 내부적 요인에서 유발되었는지 외부적 요인에서 유발되었는지의 원인에 따라 내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와 외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로 나눌 수 있다. 내적 동기란 흥미, 호기심, 자기 만족감 등의 내적 요인 자체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명백한 보상도 바라지 않는 것을 말하며 학습자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위 자체에서 오는 만족감으로 그 행위에 임하는 것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가 즐겁고 재미있어서 참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외적 동기란 자기 자신으로부터가 아닌 외부로부터의 보상을 기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칭찬을 받기 위해서, 좋은 성적이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과 관련된 동기를 말하며(Brown, 2001), 단지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행동 역시 외적으로 동기화된 것이다(Brown, 1994). 면담을 통해 학생들은 프로그램 선택에 있어 자발적 참여의 경우 내적 동기에 맞는 선택을 하고 있고, 부모님과 상의 후 선택하거나 부모님의 권유로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 외적 동기에 맞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방과후학교의 의미

도시에서 주로 부족한 교과를 보충하기 위해서나 예체능 분야 교육에 대한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방과후학교를 이용하는 이유인데(2007, 이화자) 반해 농촌의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농촌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로서 방과후학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김에스더, 2017).

가. 자기계발과 자기만족

프로그램 선택 시 처음 생각과 수강 후의 생각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서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 수강한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수행평가 과제수행시 ppt 작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는 답변과 음악 수행평가 시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다.

한장미: 생각의 차이는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는 컴퓨터 자격증을 얻기 위해 연습하고 노력한 것이 나중에는 결국 저에게 이득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과목마다 수행평가로 포트폴리오 ppt작업을 할 때, 더 많은 기술을 배운 저에게는 항상 칭찬이 돌아오고 덕분에 수행평가 점수도 얻고 기분도 좋아지는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플루트도 배워두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음악시간 플루트 수행평가 시간에 저를 대표로 세워 연주한 적도 있었는데 아마 방과후가 아니었으면 저도 지루한 이론수업에 어리바리한 친구들처럼 되어있지 않았을까요? 앞서 말한 두 개와는 반대로 영어는 기대 이하였다 생각해요. 제가 배우고 싶었던 것은 중학교 이전의 기본적인 문법, 회화법으로 부족한 기초를 깔고 싶었던 것뿐인데.... 정말 방과후 시간에 배웠던 영어는 뭘 배웠는지조차 생각이 잘 안 나요.

최구름: 컴퓨터 배우니까 자격증도 생기고 숙제할 때 내가 주도적으로 하니까 좋기도 해요.

고바위: 엄마가 하래서 하긴 했는데 그냥 시간 채워야지 했는데 계속하니까 자격증 시험 봐서 귀찮기는 했는데 자격증 따니까 좋아요. 그리고 ppt 만드는 거 잘하니까 모둠 활동할 때 좋아요.

고매화: 플루트 하면 악기는 잘하겠지 했는데 연주회에서 연주도 하니까 자신감도 생기니까 좋아요. 영어 할 땐 공부배울거라 생각했는데 팝송을 더 많이 배운 거 같구. 컴퓨터는 자격증도 생기고 숙제할 때 내가 ppt 만들어서 하니까 자신감도 생겨요.

이차돌: 영어 들으면 학교 영어 잘 할 줄 알았는데 그냥 그렇구. 컴퓨터는 자격증 따는 거니까 처음이랑 똑같은 한테 학교에서 숙제할 때 ppt 만드는데 내가 잘하니까 기분

좋아요.

정바다: 클레이아트는 작품 만들잖아요. 그거 전시할 때 뿌듯해요. 그리고 쿠키 만드는 거는 하는지 몰랐는데 해보니까 재미있어요. 집에서 만들기도 해요.

현나무: 영어는 모르겠고 컴퓨터 배우니까 자격증 따니까 좋아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까도 답했는데....

정바다의 경우 작품을 만들고 전시하면서 뿌듯함을 느꼈다고 하였고, 쿠키 만드는 시간에 배운 것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현나무의 경우 영어는 수업을 듣기는 하지만 잘 모르겠다고 하였고 컴퓨터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한소리: 그냥 취미로 하는 거예요. 나도 언니(진국화)랑 같이 연주했어요. 가족들이 좋아하니깐 뿌듯했어요.

연구자: 잘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한소리: 그냥 악기 배우니까 좋아요.

진국화: 바이올린을 잘 하고 싶어서 신청한 건데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 앞에서 징글벨을 연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기분이 좋았어요. 바이올린은 계속 수강해서 더 잘하고 싶어요.

연구자: 잘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진국화: 그냥 취미예요. 악기 하나는 배워서 잘 하고 싶어요.

바이올린 강좌를 수강하는 진국화와 한소리의 경우 참여한 바이올린을 잘하고 싶었다고 하였으며 처음 생각과는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바이올린을 배움으로 연주할 수 있는 곡이 생겨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 좋았다고 하였다.

프로그램 선택 시 처음 생각과 수강 후의 생각의 차이를 묻는 질문을 통해 방과후 학교 특기적성 분야를 통해 자기개발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 수업 참여 시 ppt 작성이나 음악 수행평가 등을 수행하면서 자기만족과 자신감을 얻었다고 한다. A초등학교는 2년에 한 번 「꿈·끼 재능발표회」에서 방과후학교 프로

그램에 참여한 학생들과 각 학년별 재능을 발표하는 행사가 열린다. 영어의 경우 영어뮤지컬 공연을 준비하고, 클레이아트는 작품전시회, 나머지 악기는 연주할 곡을 선정하고 준비하여 무대에 오른다. 학생이 많지 않다 보니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무대에 오르는데 타의적 참여로 수업태도가 좋지 않은 학생들도 무대에 오를 때만큼은 적극적이고 자기만족을 느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김바람: 수강하기 전이나 후에 생각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플루트가 재미있다는 알아낸 정도....

김바람의 경우 자발적 참여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나, 별다른 생각의 차이는 없었고, 재미있다는 정도를 알아내었다고 하였으며, 더 이상의 생각을 끌어내지는 못하였다. 김바람 학생의 어머니와 친분이 있어 김바람 학생과 주말에 야외활동을 함께하는 경우가 많은데, 김바람 학생의 경우 경험을 중요시하는 부모님의 생각대로 지역 청소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또한 경험을 위한 연장이라 생각하는 듯하였다. 프로그램 선택 시 처음 생각과 수강 후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참여 형태에 따라 답변이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수업과 차별화된 자율의 시간

방과후학교는 학교 정규 교육과정 외 발생하는 방과후 시간에 학생에게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실시함으로써, 공교육의 신뢰성 회복하고 전인교육을 담당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이완형, 2007). 이런 방과후학교와 정규수업의 차이점에 대해 학생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보았다.

김바람: 방과후학교는 정규수업이랑 다르게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끌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정규수업은 정말 성적만을 위해 존재하는 거... 그런 느낌인데 방과후학교는 접하기 힘든 활동을 배워 볼 수도 있고, 컴퓨터 같이 배워두면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수업이라 정규수업과는 아예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방과후

수업은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차이점... 방과후수업은 내가 원하는 수업을 골라서 수강할 수 있어서 정규수업보다 좋지만, 현재 우리 학교에는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이 많지 않아 아쉬워요. 수강 가능한 과목을 더 늘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장미: 영어만 빼고 말할게요. 그건 정말 답이 없어요. 별 차이도 없고 학교 수업 두 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규수업은 국수사과영. 기본적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초 지식들을 배우잖아요. 하지만 방과후학교 수업은 그런 틀에서 벗어난 수업이랄까?

진국화: 방과후수업은 우리가 수업시간에 미처 배우지 못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학교 수업은 저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밑천이라고 생각해요. 방과후학교는 나의 소질 계발이나 취미활동에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소리: 진국화 언니랑 같은 생각이예요. 나도 방과후는 취미활동 같다고 생각해요.

정바다: 정규수업은 그냥 안 하면 안 되는 거구 방과후학교는 내가 골라서 해도 된다는 거...

최구름: 정규수업은 꼭 배워야 하는 거구 방과후학교는 하고 싶은 거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달라요. 방과후수업은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골라서 수강할 수 있어서 좋아요.

고매화: 학교는 꼭 가야 하고 배워야 하는데 싫어요. 그거 가르쳐 주는 게 정규수업이구 방과후학교는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니까 꼭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게 다른 거 같아요.

고바위: 정규수업 안 들으면 학교 졸업 못하는데 방과후학교는 꼭 해야 하는 거는 아닌 거.

현나무: 정규수업은 꼭 해야 하는 거구 방과후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학생들은 정규수업을 꼭 해야 하는 의무적인 수업이라는 의견이 많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며, 방과후학교는 끼와 재능을 끌어내는 수업이고, 정규수업은 지식을 키워주는 수업으로 방과후수업과 정규수업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생들은 방과후수업에 정규수업과정과 같은 영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학교 수업의 연장과 같다고 말하였다. 방과후수업은 선택을 할 수 있어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래 답변은 참여자 한장미의 답변 내용 일부이다.

한장미: 개설된 프로그램 중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배울 수 있고, 무엇보다 학교 수업에서는 배워보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배워 나간다는 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런의

미에서 공부에서 벗어난 조금 더 다양한 예체능 프로 프로그램이 개설됐으면 하는데요
흥도 넘치고 놀기 좋아하는 여자애들을 위한 노래 부르기 반, 댄스반, 연극반 등
이 개설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별로 방과후학교에 흥미
를 느낀다는 생각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방과후학교가 너무 형식적
인 것들로만 가득 차 있어서라 생각해요. 앉아서 수업 듣기보다 자율적인 활동을
좋아하는 남자애들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 축구나, 배드민턴, 야구 등등 조금 더 자
유를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설되기 희망해요.

방과후학교와 정규수업의 차이점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방과후수업은
정규수업과 다른 방향이기를 학생들이 원하고 있었다. 방과후학교는 말 그대로 방과
후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하루 종일 수업에 지친 학생들이 방과후교실에 들어와
또 다른 수업을 듣는다면 더 지치고 힘들 것이다. 하지만, 교과방과후의 경우 특별한
방법이 마련되지 않는 한 수업의 연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다(박효정,
2014). 이런 의미에서 학생들은 방과후학교를 정규수업과 차별화된 자율의 시간이기
를 바라고 있으며,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이 개설되었으면 하는 요구를 엿
볼 수 있다.

이차돌: 정규수업은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고 방과후학교는 강사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연구자: 학교선생님이랑 강사 선생님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차돌: 방과후학교는 돈 내잖아요. 그럼 고용된 사람이니까 선생님이랑 달라요.

연구자: 선생님도 월급 받는데.. 왜 다를까?

이차돌: 선생님은 우리 엄마가 안주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은 잘 듣게 되는데 강사 선
생님은 안 들어도 될 거 같아요.

이차돌 학생의 경우 다른 친구들과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방과후학
교 강사들이 느끼는 심리적 차별 중의 한 부분에 해당된다. 엄마들은 수업료와 수업
의 질을 같은 선상에 놓고 평가하며, 방과후학교 수업 수강료가 워낙 싸니까 못 미덥
고, 못 미더운 수업을 하는 선생님도 못 믿는다(박효정, 2014: 58). 이차돌 학생의 답
변은 이런 부모의 생각이 학생에게 고스란히 전달된 경우일 것이다.

다. 교과 보충을 위한 차선택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학교와 가까운 학원에서 동일하게 개설된다면 어느 곳에서 수강할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정바다: 방과후학교는 학원보다 싸요. 근데요 학원하고 방과후하고 똑같으면 학원가요. 학원은 전문적인 선생님이 가르치잖아요.

연구자: 방과후 선생님은 전문적이지 않나요?

정바다: 그런 거 같아요. 방과후 선생님은 수업 있을 때만 왔다 가요. 전문적이면 학교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 엄마처럼 집에도 가요.

한소리: 나두 가격이 똑같다면 학원으로 갈 거예요.

연구자: 왜 학원으로 가나요?

한소리: 웬지 학원이 더 전문적으로 잘 가르쳐 줄 것 같아서요. 근데 금액이 비싸다면 학교 방과후 들을 거예요.

진국화: 가격이 똑같다면 학원으로 갈 거예요.

연구자: 왜 학원으로 가나요?

진국화: 웬지 학원이 더 전문적으로 잘 가르쳐 줄 것 같아서요. 근데 금액이 비싸다면 학교 방과후 들을 거예요. 전공 안 할거고 취미로 하는 거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걸로도 충분한 거 같아요. 근데 가격이 똑같다면 배우는 거 잘 배우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고바위: 학원이요. 태권도 학원에서 배우면 더 잘 가르쳐 주잖아요. 방과후학교는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 같아요.

수업료가 같을 경우 방과후학교보다는 학원에서의 수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방과후학교보다 학원이 더 전문성 있게 잘 가르칠 거라는 생각은 이번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 대부분의 의견이었다. 학교 교사도 학원 교사도 아닌 방과후학교 교사들의 정체성은 모호하다(이자형, 2011).

김바람: 학원에서 수업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배우는 느낌인 데다 돈도 많이 들어서 저는 취미 느낌으로 배우는 거라 방과후학교를 들을 거예요.

한장미: 학원비 한달에 30만원 인가? 듣기로 엄청 비싸 던데.. 예체능 쪽은 더 비싸다고 들었어요. 전공할 것도 아닌데 굳이 그 돈까지 들어서 학원을 끊을 필요까진 없을 것 같아요. 방과후학교는 학원에 비해 돈도 별로 안 들잖아요?

고매화: 전 학교요. 길 건너는 거랑 왔다 갔다 하는 거 불편해요.

최구름: 나두 학교요. 시간 남으면 운동장에서도 놀 수 있어요.

현나무: 나두 학교. 시간 남으면 축구할 수 있어요.

방과후학교를 선택한 학생의 경우는 이동의 불편함과, 전공할 거 아니라면 굳이 학원을 갈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차들: 난 비싸지 않은 데로 갈 거예요.

이차들 학생의 경우 방과후학교와 학원의 금액차이가 없이 동일하다는 질문에도 비용이 싼 곳으로 갈 것이라고 답하였다. 방과후학교 운영의 목표 중 하나는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것에 있다. 하지만, A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의 경우 4시 이후 종합학원 버스를 기다리는 학생들이 학교 주차장에 모여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본 연구자는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면서 학생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아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에게 다니지 않는 이유를 물었는데 집에서 학습지를 하거나 소규모로 모여 과외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영어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학원을 가지 않는 이유를 물었을 때는 학원은 차를 타고 이동해야하고 학원비도 비싸서 그냥 학교에서 듣는다고 하였다.

홍우조 외(2005)의 연구에서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은 방과후학교 참여 이유로 소질과 특기 계발 다음으로 21.5%가 학교교육 보충을 들었다. 학생 스스로 교육받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하여야 한다(김선희, 2012).

이번 질문을 통해 학생들은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학원을 가야 하지만, 지역특성상 학원이 먼 거리에 있어 차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보다 이용의 편리함과 저렴한 수강료를 이유로 방과후학교를 선택하였다.

라. 보육기능

방과후학교를 수강하지 않는다면 그 시간에 무엇을 했을까 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한소리: 영어수업받으러 가거나 영어 인터넷 강의 들을 거예요. 스마트폰이 없어서 게임보다 이게 더 재미있어요.

연구자: 놀거나 그러지 않아요?

한소리: 노는 건 주말에 놀아요. 엄마랑 주말에 많이 체험하러 다니고 있어요. 영어가 재미있어요.

연구자: 방과후에도 영어 있는데 왜 안 하나요?

한소리: 영어학습관이 집중도 잘되고 잘 가르쳐 주세요. 학교랑 멀어서 엄마가 매일 태워다 주긴 하는데 그런 거 빼고는 다 좋아요.

진국화: 영어수업받으러 갈 거예요. 아니면 영어 인터넷 강의 들을 거예요. 컴퓨터 게임 같은 건 안 해요. 컴퓨터 게임 같은 건 안 해요. 스마트폰도 없구요. 영어가 재미있어요.

연구자: 방과후에도 영어 있는데 왜 안 하나요?

진국화: 영어학습관이 시설도 좋고 집중도 잘되고 잘 가르쳐 주세요. 떠드는 학생도 없고 좋아요. 개인별로 이어폰 끼고 하는 거라 내 실력에 맞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방과후는 한 반에서 학년별로 나뉘어서 하는데 잘 안 맞는 거 같아요. 학교 수업받는 느낌 같아요. 실력이 느는 것 같지도 않아요.

방과후학교 영어 프로그램의 경우 학년별 구분으로 영어수업을 진행하므로 영어에 흥미를 가진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개인마다 수준의 차이가 있으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형태의 교과 관련 프로그램 개설은 학생들에게 흥미를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참여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정경필, 2009).

김바람: 아마 친구들이랑 노느라 용돈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집에 와서는 핸드폰만 하지 않았을까요? 엄마가 통제는 하겠지만....

한장미: 아마도.. 스마트폰에 손이 가지 않았을까요. 집에 와있으면 학원을 다니지 않는 이상 먼저 손이 가는 게 전자기기.. 폰이나 컴퓨터를 했을 거 같은데요?

정바다: 집에 가거나 운동장에서 놀거나 스마트폰 게임.

이차들: 친구들이랑 스마트폰 게임하고 놀 거예요.

최구름: 운동장에서 놀 거예요.

현나무: 친구랑 놀 거예요.

방과후학교를 수강하지 않는다면 10명의 응답자 중 8명의 학생이 스마트폰이나 학교 운동장에서 놀 거라는 답변을 하였다.

고매화: 학원 더 다녀야 할지도 몰라요. 엄마 퇴근시간까지 있어야 하니까.

고바위: 엄마가 학원 보냈을 거예요. 난 학교 끝나면 엄마 올 때까지 집에 못 가니까.

고매화와 고바위의 경우 부모님의 퇴근시간까지 학원을 더 다녀야 한다고 하였다.

매년 3월이 되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신청받을 때 학부모로부터 매일 고정적인 시간에 끝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프로그램을 수강해야 하는지 묻는 전화가 많이 왔었고, 어떤 한 부모님의 경우 학생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어머니가 올 수 있는 시간에 맞게 프로그램을 신청해 주길 요구한 적도 있었다. 이렇게 방과후학교는 돌봄 교실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부모의 강요에 의해 강좌를 의무적으로 수강하는 학생들로 인해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문화적 시설이 부족한 농산 어촌에서의 방과후학교 의존도는 높으나 아동의 보호수단으로 전략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김에스더, 2017).

3. 방과후학교의 문제점: 자율 vs 의무감의 갈등

자발적 참여가 높은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열의가 높고 학습한 내용을 내면화하는 경향이 크다고 한다(박소영, 2004). 자발성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동기가 생성된 상태로, 능동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이현욱, 2018).

방과후학교를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 지금 수강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지에 대해 질문하고, 수강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유가 특별히 없을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답변을 유도하였다.

김바람: 지금은 플루트와 미술을 수강하고 있어요.

연구자: 지금 수강하는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바람: 사실 저는 흥미가 가는 것만 해보고, 좋아하는 프로그램만 하기 때문에 플루트와 미술이 가장 적성에 맞고 재미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플루트는 3학년부터 지금까지 쪽 들어와서 정말 재미있고, 실력이 좋아지니 자신감도 생기고, 미술 프로그램은 그림을 막 그리는 것이 아니라 기본기를 키워 줄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해요.

한장미: 영어, 플루트, 난타, 컴퓨터를 수강하고 있어요.

연구자: 지금 수강하는 프로그램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를 들어 좋아하는 거나 배울 때 어떤지 그런 거요

한장미: 저는 프로그램 중 플루트와 난타를 제일 좋아해요. 영어나 컴퓨터는 사실 좋아하는 것보다는 해야 되는 것에 속해요. 저의 부족한 영어실력을 보충하기 위해 영어 방과 후는 빠짐없이 신청하고 있고 컴퓨터는 선생님께서 자격증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신 뒤로 열심히 수강하고 있어요 그 덕에 컴퓨터 자격증 3개를 얻어 마스터 자격증을 땀어요. 뿌듯하고 잘 한일이라 생각해요.

최구름: 컴퓨터 수강해요. 전 컴퓨터가 살아가면서 많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재미도 있고요. 자격증 따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과제할 때 내가 주도적으로 하니 좋기도 해요.

정바다: 클레이아트 해요. 손으로 만들고 하니 재미있어요. 작품도 만들어서 집에 가져가는데 진짜 예뻐요. 선생님도 진짜 친절하고 예쁘세요. 한 달에 한 번은 쿠키 만드는데 그날은 진짜 기대되고 좋아요.

자발적 참여를 하고 있는 김바람, 한장미, 최구름, 정바다의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 적극적이었고,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해야 하는 이유와 생각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다.

고매화: 플루트, 영어, 컴퓨터 수강해요. 플루트는 2년에 한 번 발표할 때 앞에서 연주하거든요. 그럴 때 뿌듯해요. 그래서 더 많이 연습하려고요. 그리고 영어수업은 애들이 떠들어서 불편할 때가 많은데 영어 팝송 배울 때 재미있어요. 컴퓨터는 자격증 딸 수 있

는데 자격증 따니까 기분도 좋고 실력도 늘어서 학교 수행 평가할 때 내가 ppt 만들어서 하니까 자신감도 생겨요.

이차돌: 컴퓨터랑 영어 들어요. 영어는 학교 수업에도 있고 시험도 보니까 안 듣는 것보다 나을 것 같구요. 컴퓨터는 자격증 따면 나중에 좋을 거라 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컴퓨터랑 영어 들어요.

연구자: 영어시험 볼 때 도움이 됐나요?

이차돌: 아닌 거 같은데 근데 학원 따로 안 다니니까 안 듣는 거 보다는 나은 거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연구자: 컴퓨터 자격증 취득하면 나중에 뭐가 좋을까요?

이차돌: 엄마가 그러는데 취직해서 일할 때 컴퓨터 많이 쓴대요. 근데 학교에서 수행 평가할 때 ppt 작성하거든요. 그때 내가 잘해요. 기분 좋아요.

고매화, 이차돌 학생의 경우 부모님의 원하는 프로그램과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이 경우엔 외적 동기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의 생각에 부모의 생각이 기준이 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고바위: 컴퓨터랑 영어 하는데 엄마가 안 가면 혼내서 그냥 가는데 재미없어요. 날씨 좋을 땐 놀고 싶어서 빠지는데 코디선생님이 바로 찾으러 와요. 그냥 옆드려 잘때도 있어요.

연구자: 옆드려 자면 선생님이 뭐라고 안 하시나요?

고바위: 몇 번 뭐라 했는데 이젠 안 해요. 그래도 떠드는 애들보다는 나을걸요..

현나무: 영어랑 컴퓨터 해요. 영어는 모르겠고 컴퓨터 배우니까 자격증 따니까 좋아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타의적 참여 학생의 수강 이유를 보면 컴퓨터의 경우 역지로 수업에 참여는 하였음에도 자격 취득의 동기부여가 마련되어 스스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게 되었으나, 영어의 경우 수업 참여 시 좋지 않은 태도를 지적받고 있고, 스스로도 알고 있지만 바꾸려는 의지는 없었다.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업무 중 학생 출결관리를 위해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을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들과 어찌할지 몰라하는 선생님을 본 적이 있었다. 그럴 때면 잠시만이라도 뒤에 서서 수업을 참관하면서 장난치는

학생들에게 경고를 주어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가장 많이 떠들던 A학생과 대화할 기회가 생겨 물어보니 알파벳도 정확히 모르고 있다고 하였다. A학생은 자율 수강권 대상이며, 매일 영어, 컴퓨터, 클레이아트, 난타를 수강하고 있지만, 영어 프로그램의 수강태도가 가장 좋지 않았다. A초등학교에서는 공개수업이 상반기 하반기 실시된다. A학생의 어머니가 공개수업에 참관 오셨을 때 잠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영어 방과후학교 수강 이유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음 그래도 한자라도 배워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보낸다고 하였다.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 지금 수강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지에 대해 질문을 통해 자율적 참여의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 적극적이었고,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해야 하는 이유와 생각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다. 반면 의무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자격 취득의 동기부여가 적극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결과를 바로 알 수 없는 영어의 경우에는 좋지 않은 수업태도를 학생 스스로 알고 있었으며, 문제점에 대한 노력의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자발과 의무감으로 참여한 학생의 경우에는 외적 동기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의 생각에 부모의 생각이 기준이 되는 특징이 있다.

한소리: 바이올린

연구자: 다른 강좌는 더 하고 싶은 건?

한소리: 저는 생물이나 동물에 관련된 과학프로그램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개설됐음 좋겠어요. 나는 생물이 좋아요. 그런 거 있음 좋겠어요.

진국화: 바이올린 하나만 해요.

연구자: 다른 강좌는 더 하고 싶은 건?

진국화: 예전에 육지 살 때 했던 생명과학이 있었는데 그걸 하고 싶은데 여기는 없어요.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방과후학교는 학교 정규수업의 교육활동 외 방과후 시간에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및 창의성을 계발하고, 특기를 살리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의미한다(교육개혁위원회, 1995). 한소리와 진국화의 경우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 쉽게 배울 수 없는 악기수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관심분야와 관련된 강좌가 개설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프로그램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김바람: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취미와 흥미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기준으로 하지만 학교 끝나는 시간도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저는 무언가 더 배우고 싶고 활동들이 재미있어서 1주일에 4일 5시까지 수업받은 적도 있었어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같이 하자고 계속 권유해보긴 하지만 안된다면 그냥 혼자 수강해요.

한장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친구 때문은 당연히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학교 끝나는 시간을 고려 하기도 해요. 그치만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보다 제가 배우고 싶은걸 더 배우는 게 유익하잖아요

최구름: 전 제가 흥미 있게 하고 싶은 거 먼저 생각해요.

연구자: 시간이 맞지 않을 땐 어떻게 해요?

최구름: 거의 대부분 시간은 맞아요. 학교가 빨리 끝나면 도서관 가거나 친구랑 놀고 늦게 끝나면 좀 늦게 들어가는데 선생님이랑 얘기하면 괜찮은 거 같아요

정바다: 내가 하고 싶은 거요. 기다리는 시간 생기면 도서관 가서 있다가 가요. 그리고 늦어도 선생님이 알려줘요. 친구랑 하면 좋긴 한데 학원가는 친구도 있어서 시간 맞추기 힘들어요. 그리고 집 먼 친구들은 엄마가 데리러 오면 가야 되니까 같이하면 좋은데 혼자 할 때도 있고 어쩔 땐 같이 할 때도 있어요.

김바람, 한 장미, 최구름, 정바다의 경우 프로그램 선택 시 취미와 흥미,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우선 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소리: 원하는 강좌가 하나뿐인데...

고매화: 우선 내가 하고 싶은거요. 근데 컴퓨터는 엄마가 하라구 하는거예요.

진국화: 내가 원하는 강좌가 하나뿐이라 고민할진 없었어요. 친구가 하는 건 친구가 좋아하는 거지 내가 좋아 하는 건 아니예요

이차돌: 컴퓨터는 화, 목에 있고, 영어는 월, 수, 금에 있구 끝나는 시간이랑 상관없어요. 학원 다니면 문제가 될 텐데 학원 안 다니니까 상관없어요.

한소리, 고매화, 진국화, 이차돌의 경우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아 특별한 고민 없이 프

로그래밍을 선택하고 있다고 하였다.

고바위: 컴퓨터랑 영어는 시간이 안 겹쳐요. 엄마가 하라고 한 거라 시간도 다 맞춰서 알려준 걸요. 난 안 빠지고 듣기만 하면 돼요.

현나무: 내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냥 부모님이 하라는 거 해요.

고바위, 현나무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선택한 프로그램을 듣는 거라 대답하였다.

다음으로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는지 묻고, 예를 들어 수업 끝나는 시간이 겹치거나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같은 날 같은 시간일 때 등을 제시하여 답변을 유도하였다.

김바람: 저는 딱히 그런 적은 없었던 거 같아요. 프로그램 우선순위가 항상 정해져 있어서 여건이 안 되는 방과후는 바로 포기했어요.

한장미: 일단 영어와 난타가 항상 겹쳤었어요. 아니 시간들이 너무 애매한 게 수업의 반을 잘 라먹어야 될 정도로 겹치더라고요 그럴 때는 선생님께 말씀드려 시간 조정을 하거나 아예 포기한 경우도 있어요. 특히 클레이 아트는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아예 안 맞아 상상도 못 해봤죠.

최구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정바다: 방학 때 하면 되니까 학교 다닐 땐 그냥 안 해요.

한소리: 원하는 강좌가 하나뿐이라 이런 적은 없었는데요.

고매화: 화요일 날 플루트랑 컴퓨터랑 겹치긴 해요. 근데 플루트는 혼자씩 레슨 받는 거라 늦게 가면 늦게 레슨 받음 되니까 문제없었어요. 하고 싶어서 못했던 프로그램은 없었던 거 같아요.

진국화: 원하는 강좌가 하나라 이런 고민은 한 적이 없었어요

이차들: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 그런 적은 없는 거 같은데

고바위: 그런 적 없는데....

현나무: 금요일 날 영어랑 클레이아트랑 겹치는데 그냥 안했어요. 그냥 한번 하고 싶은 건데 애들만 하는 거 같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강좌가 겹치거나 선택할 수 없을 땐 방학을 이용하거나, 바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프로그램 수강할 때 힘든 점에 대한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김바람: 학년이 바뀔 때마다 선생님이 바뀌시거나 수업 분위기가 산만할 때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힘들었어요. 바이올린도 수강했었는데 바이올린 같은 경우엔 선생님이 바뀌시고 나서 흥미도 떨어지고 수업 분위기도 살벌해지고 저랑 너무 안 맞아서 그만뒀어요. 미술도 선생님이 바뀌시고 재미가 없어져서 그만둘까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아... 클레이 아트 선생님은 좋았지만 수업 분위기가 너무 산만했어요. 수업받는 학생들이 장난은 기본이고, 욕하고 뛰어다니는 5학년 학생들까지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집에 잡동사니(만들어 가는 작품들)들도 너무 늘어나는 거 같아서 수강을 포기하고 그만두었어요.

한장미: 많아요. 아주 많아요. 일단 친구들 중 특히 남자애들! 그 친구들은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엄마의 부탁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많았어요. 특히 무리 지어 다니는 친구들은 수업시간에 시도 때도 없이 떠들죠 수업에 정말 방해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리배치를 아예 섞어버리거나 정말 심하게 떠드는 학생은 퇴장 조치시켰어요. 아 그리고 선생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지루한 과목의 수업이더라도 선생님의 수업 방식에 따라 집중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수강하는 영어 프로그램의 강사 선생님이 1번 바뀐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 선생님은 문제를 설명하고, 틀린 점은 함께 풀어나가고, 모르는 부분은 한 번씩 설명해 주신 반면, 두 번째 선생님은 간단한 설명 후 문제를 각자 풀게 하고 채점 후 바로 진도를 나가셔서 정말 따라잡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팝송 부르는 시간이 재밌었는데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영어 수강을 포기했어요. 실력이 늘지가 않아서...

농산어촌지역은 지역여건 및 교통문제 등으로 외부강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이완형, 2007), 강사들은 수강료 미납, 먼 이동 거리, 적은 수강료 등의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김에스더, 2017). 매년 바뀌는 강사의 경우도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갖는 불만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정바다: 수업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데 쿠키 만들 때 와서 방해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럴 땐 짜증 나요.

고매화: 영어시간에 지우개 던지고 웃고 떠드는 애들이요. 선생님도 막 화만 내요. 근데 그

애들은 계속 와서 수업에 방해만 해요.

연구자: 왜 떠들기만 하는 거 같아요?

고매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 봐요. 책도 안갖구 오고 킥킥 웃고.. 그러다 저변에는 중간에 있는 애 얼굴에 물건 맞춰서 그 친구 울면서 갔어요. 진짜 싫어요.

현나무: 영어시간에 떠들고 장난치는 애들.... 화만 내는 선생님...

수업에 대한 의욕이 없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은 수업분위기를 흐리거나 열심히 참여하지 않으며, 강사들은 이를 쉽게 제지하지 못하여 수업운영의 좋은 구성과 높은 질을 기대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게 된다(김에스더, 2017).

한소리: 진짜 짜증 나요. 기다리기만 하고 5분만 레슨 받아서 요즘은 배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진국화: 바이올린 수업은 각자 선생님과 개인 레슨을 받는 식으로 하는데 저학년들이 많아 우리 차례가 미뤄지고 레슨 받을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 자세히 배울 수 없어 불편해요.

3년간 동일한 강사로 진행되어오던 바이올린의 경우 새로운 강사로 변경되면서 수업 진행에 있어 학생 개개인의 적절한 레슨시간 배분이 어렵고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 학생들의 불만이 발생되었다.

고바위: 날씨가 좋을 때..... 진짜 많이 놀고 싶어요 ...

최구름: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 불편한 거

이차돌: 특별히 힘들 때 없어요.

고바위는 날씨가 좋을 때 놀고 싶은 마음이 커서 힘들었고, 최구름과 이차돌은 특별히 불편한 점이 없다고 하였다.

4. 활성화 방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하는 학생들

방과후학교는 학생들의 소질 계발에 필요한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농촌의 소규모 학교에서의 방과후학교는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방안에 단순히 하고 후 학생들의 시간 때우기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김에스더, 2017).

이에 따라 활성화 방안을 파악하고자 학생들에게 프로그램 수강 후 계속 수강 여부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진국화: 바이올린은 계속하고 싶은데..... 근데 학교에서 생활과학 수업이 방과후는 아닌데 학교 끝나고 30분 정도 있을 계획인데 내가 좋아하는 거라 그거 들을 거예요. 아마 두 달 정도 할 건데 그거 끝나면 다시 할 거예요. 근데 1, 2학년들이 너무 많아서 배울 시간이 얼마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엄마랑 상의해서 할지 안 할지 생각해 보려고요. 진짜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짜증 나요. 저번 선생님은 자세히 잘 가르쳐 주셨는데 이번 선생님은 1, 2학년 위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별로예요. 근데 애들이 게이름도 못 보는데 그냥 악보만 주세요. 전에 선생님은 게이름 적어줘서 바이올린 연습에 집중하고 나중에 게이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됐는데 이번 선생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 힘들기도 해요. 곡 선택도 어려운 거 하셔서 그것도 힘들구요.

한소리: 바이올린은 계속할라구 하는데 이번에는 할지 안 할지 생각해 보려고요. 나두 언니(진국화)랑 같은 생각이예요.

한소리와 진국화의 경우 강사 교체로 인한 불편함을 언급했다. 강사 교체는 수강생들의 계속 수강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바람: 미술과 플로트는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 계속 수강할 건데... 혹시 댄스, 만들기 등 프로그램이 생긴다면 신청해 보고 싶어요.

정바다: 계속 수강할 거예요. 선생님도 친절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계속하려고요. 근데 요리 같은 거 개설되면 좋겠어요. 그럼 그것도 하고 싶은데...

고매화: 계속하려고요. 플루트 잘하면 중학교 가서도 수행평가 있는데 도움이 될 거라 했고, 영어는 수업 분위기가 별로 긴 한데 안 하는 것보다는 배우는 게 맞을 거 같구 컴퓨터는 학교 아님 배울 때 없으니까 계속 배워서 자격증 따놓을 거예요.

연구자: 혹시 새롭게 개설되면 좋은 프로그램 있을까요?

고매화: 난 축구나 농구 좋아해요. 남자에들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축구랑 농구 있음 꼭

할 거예요.

최구름: 계속 수강할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흥미 있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개설되면 그것도 할 거예요.

연구자: 어떤 프로그램이 새로 개설되면 좋을까요?

최구름: 로봇과학이나 드론 날리는 거 그런 거면 좋겠어요.

김바람, 고매화, 최구름의 경우 계속 수강을 원하지만, 새로운 강좌가 개설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차들: 엄마는 컴퓨터랑 영어를 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나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연구자: 왜 들어야 할 것 같을까요?

이차들: 영어학원도 안 다니는데 방과후학교는 수강료도 저렴하고 영어도 배울 수 있고, 컴퓨터 배울 데가 주변에 없는데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자격증도 딸 수 있으니까요. 엄마가 그러는데 배우는 건 좋은 거래요.

연구자: 혹시 새롭게 개설되면 좋은 프로그램 있을까요?

이차들: 저는 자연관찰요. 난 곤충이랑 풀들 보는 거 좋은데 그런 거는 없어요.

이차들은 타의적 참여 학생으로 자연관찰과 같은 프로그램이 개설될 경우 자율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드러냈다. 제주도는 자연을 접하기 좋은 환경으로 이런 지역특성을 활용한 특색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개설을 요구하고 있다.

고바위: 아마 계속할걸요. 엄마가 계속하라고 했어요. 근데 중학교 갈 때쯤엔 영어학원 갈 거 같아요. 엄마가 중학교 가기 전엔 영어학원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중학교 가서 공부하기 쉬울 거라고 했어요.

연구자: 학교 영어수업은 많이 도움이 안 되나요?

고바위: 그냥 앉아있다 와요. 실력이 느는지는 모르겠어요. 학원 가면 잘 가르쳐 준다니까 그때 다시 배우면 될 거예요.

연구자: 혹시 새롭게 개설되면 좋은 프로그램 있을까요?

고바위: 전 지금이면 충분해요. 또 생기면 엄마가 또 시킬지도 몰라요. 그럼 놀 시간이 없어요.

현나무: 축구, 배드민턴, 농구 이런 거 생기면 바로 수강 하려고요. 토요 스포츠 있긴 한데 그냥 방과후에도 있었음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수강(영어, 컴퓨터)하는 건 엄마가 하라구 하니까 계속할 거예요.

고바위와 현나무는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계속 수강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였다. 고바위는 새로운 강좌 개설로 방과후학교 참여가 더 늘어날 것을 부담스러워 했으며, 현나무는 축구나, 배드민턴, 농구 같은 프로그램이 새롭게 개설 될 것을 희망하였다.

한장미: 영어 같은 경우는 이미 선생님과 맞지 않아 빼버렸고, 나머지는 전부 저에게 이득이 된 거 같아 계속 수강 할 거예요.

자율적 참여를 하고 있는 한장미는 현재 수강 중인 프로그램의 계속 참여 의사를 이야기하였으나, 영어는 한장미의 답변을 종합적으로 볼 때 교과 실력을 기대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더 이상 수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국제 수학 및 과학 교육 추이(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TIMSS)와 국제 학업성취 비교연구(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 PISA)에 따르면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대한 기대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Social Economic Status : S.E.S)에 좌우되고, 교사의 질, 교과서, 최신 건물 등의 학교 내 변인과 학업성취도와는 상관이 없으며 과제 집중시간(Time on Task)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chubert, 1986). 이 같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장미의 기대는 교육적 근거에서 벗어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면담을 통해 학생들은 자기계발에 대한 기대가 많았으며, 몇몇의 학생들은 부족한 교과 보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방과후학교 영어 프로그램의 경우 영어에 흥미를 가진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으며, 학생들 개인마다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형태로 진행되는 수업은 학생들에게 흥미를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참여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정경필, 2009). 성열관, 민부자(2007)의 연구에서 학생들은 방과후학교에 적극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이런 기분에 맞는 즐거움과 재미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요구하였다.

2013년 헤드라인 제주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내 학부모들은 대체로 가능하다면 제주 동지역의 평준화고에 입학하기를 원한다. 타도시의 경우 중학교 졸업생 대비 70~80%가 평준화고에 들어갈 수 있지만, 제주도는 53%만이 평준화고에 입학할 수 있고, 나머지는 특성화고와 읍면지역의 일반계고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해마다 평준화고 입학 경쟁률은 치열하다. 높은 고입 경쟁률은 초등 및 중학교의 교육과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운영보다는 고입 경쟁을 염두에 둔 학력 중심, 평가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인해 학생들은 심각한 학업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2013.12.20.). 제주의 입시제도는 30여 년간 지속되어 왔고 2018년부터 연합고사가 폐지되기는 하지만, 동지역의 평준화고 입학에 대해 중학교 내신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초등학생 때부터 교과 보충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강의, 학생 활동, 학습자료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특색 있는 교수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더 활성화되기 위해 향후 운영에서도 보다 다양한 교수 방법을 시도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김선희, 2012).

방과후학교는 학생들이 희망과 선택을 반영해 편성하고, 지적 호기심이 있거나 공부하고 싶은 분야, 기능, 특기적성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나 하고 싶은 것을 찾아 스스로 참여할 때 열정이 생기고, 열정이 있어야 몰입이 가능하며, 창의성이 생겨 즐겁게 지속할 수 있다(울산매일, 2016.08.09.). 학교에서의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효과는 아동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며, 신나게 가르치고 즐겁게 공부하게 함으로써 아동이 즐거운 마음으로 오고 싶어 하는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있다(이완형, 2007).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제주 농어촌 지역 초등학생들이 갖는 방과후학교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현행 방과후학교가 추구하는 사교육비 경감과 지역 소득 간 교육격차 해소 문제에 집중하여 이와 관련한 제주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고자 세운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농어촌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의 참여 동기는 무엇인가?

두 번째 학생의 경험과 이해를 토대로 방과후학교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세 번째 농어촌 방과후학교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질문지 작성 시 참여 형태, 방과후학교의 의미, 방과후학교의 문제점, 활성화 방안 4가지 영역으로 질문을 구성하여 정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 문제에 맞게 도출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농어촌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의 참여 동기는 자발적 참여의 경우 내적 동기에 맞는 선택을 하고 있고, 부모님과 상의 후 선택하거나 부모님의 권유로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 외적 동기에 맞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 동기는 흥미, 호기심, 자기 만족감 등을 기준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외적 동기는 자기 자신으로부터가 아닌 외부로부터의 보상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좋은 성적이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과 관련된 동기를 말한다. 동기는 모든 행동의 시작이라 할 수 있으므로, 방과후학교 운영 목적에 맞게 특기적성, 교과 프로그램 및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동기를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학생의 입장에서의 방과후학교의 의미하는 바에서는 자기계발과 자기만족, 수업과 차별화된 자율의 시간, 교과 보충을 위한 차선택, 보육기능 네 가지 코딩이 도출되었다. 우선 자기계발과 자기만족에서 학생들은 학교 특기적성 분야를 통해 배운 것들을 활용하여 자기계발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수업 참여 시 ppt 작성

이나 음악 수행평가 등을 수행하면서 자기만족과 자신감을 얻었다고 한다.

다음으로 수업과 차별화된 자율의 시간에서는 정규수업과 방과후학교 수업의 차이를 묻는 질문을 통해 학생들은 방과후학교와 정규수업과는 다른 방향이기를 원하는 생각을 엿볼 수 있었으며, 방과후학교는 선택의 자율, 참여의 자율이 있으며, 하루 종일 수업에 지친 학생들은 방과후학교 수업이 정규수업과는 차별화된 선택과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다음은 교과 보충을 위한 차선택으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학교와 가까운 학원에서 동일하게 개설된다면 어느 곳을 수강할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학생들은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학원을 가야 하지만, 지역특성상 학원이 먼 거리에 있어 차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보다 이용의 편리함과 저렴한 수강료를 이유로 방과후학교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보육의 기능으로 방과후학교를 수강하지 않는다면 그 시간에 무엇을 했을까에 대한 질문을 통해 학생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학교 운동장에서 놀지 않으면 친구네 갈 거라고 하였으며, 부모님이 올 때까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이렇듯 방과후학교는 돌봄교실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자율 vs 의무감의 갈등이다. 부모의 권유로 참여한 학생의 경우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고, 강사들은 이를 쉽게 제지하지 못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게 된다. 이외에 농산어촌지역의 교통문제 등으로 실력 있는 외부강사 확보가 어렵고, 매년 바뀌는 강사의 경우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갖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네 번째 농어촌 방과후학교의 활성화 방안으로 수업과 차별화된 경험 중심의 프로그램과 부족한 교과 보충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방과후학교를 통해 자기계발에 대한 기대가 많았으며, 몇몇의 학생들은 부족한 교과 보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과후학교는 지적 호기심이 있거나 공부하고 싶은 분야, 특기적성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강좌 개설과 자율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학생들이 관심분야나 하고 싶은 것을 찾아 스스로 참여할 때 더욱더 활성화된 방과후학교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타의가 아닌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참여가 즐겁고 재미있는 활동이 될 것이다.

2. 제언

이상으로 사교육비 경감과 지역 소득 간 교육격차 해소라는 측면에서 추진되어 온 방과후학교의 목적이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농어촌 지역의 초등학교 현장에서 방과후학교 의미를 방과후학교 이용주체인 학생의 소리를 통해 전달하고자 A초등학교 5~6학년 10명의 면담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생의 선택과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야 한다.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에 학생 스스로 선택하여 참여하는 만큼 학생들의 지적호기심이 있거나, 공부하고 싶은 분야, 특기적성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강좌의 개설이 필요하다.

둘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다양한 교수방법을 시도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는 자기계발과 자기만족, 수업과 차별화된 자원의 시간, 교과 보충을 위한 차선택, 보육기능으로 나뉘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형식은 강의, 학생활동, 학습자료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생들의 자기계발과 자기만족을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어 학생들의 관심, 흥미,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단순 보육기능으로서가 아닌 하루 종일 수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활동하면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교과영역(영어)에 대한 기초학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준별 강좌가 개설되어야 한다. 강좌 개설을 위해서는 우선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정확한 진단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기초학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강좌가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방과후학교 교과영역은 교과 보충을 위한 차선택이 아닌 자발적 선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읍면지역의 학교를 구역으로 나누어 강사가 자유롭게 이동하며 수업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강사 수급에 대한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강사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강사로부터 안정감과 책임 있는 프로그램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잦은 강사 교체에 따른 학생들의 불만도 해소될 것이다.

본 연구는 제주시 읍면지역에 A초등학교 5~6학년 1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타 농촌지역 및 표집 학교별 차이에 대한 변인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를 모든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의 특성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앞으로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더욱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2016).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정책자료.
- 교육개혁위원회(1995).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교육개혁위원회 제2차 대
통령 보고서.
- 교육인적자원부(2007a). 2007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계획(안). 정책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7b).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등 방과후학교에 총1150억 지원 - 「2017
년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발표. 보도자료.
- 김경근(2005). 한국사회 교육 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한국교육사회학연구**, 15(3), 1-27.
- 김경근(2009). 방과후학교는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한국교육사회학연구**,
19(1), 1-27.
- 김경근·변수용·황여정(2011). 방과후학교 참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사회학
연구**. 21(2), 57-85.
- 김선희(2012). 한국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교육의 참여도와 만족도. 박사학위논문. 단국대
학교 대학원.
- 김수동(2007). 방과후학교의 장애요인 및 극복과정: 전략과 정책 연구 과제 탐색. **열린교
육연구**, 15(3), 127-150.
- 김에스더(2017). 농촌소규모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인대학교 교
육전문 대학원.
- 김영천(2006). **질적연구방법론 1**. 서울: 문음사.
- 김홍원·조호제·윤유진·진미경·이용민·이혜연·노신민·조선하(2007).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제도 성과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한국교육개발원.
- 김홍원·양애경·노신민·조호제·김경성(2008). **2008 방과후학교 성과분석 연구**. 서울: 한국
교육개발원.
- 김훈기(2006). 소규모 초등학교 공동 교육과정 운영의 실제와 개선 방안.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나승일·김승희(2002).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실태와 발전방안. 한국농·산업교육학회 학술
대회 발표자료집, 193-224.

- 박균달·최종진·심은석(2016). 방과후학교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 **사회복지경영연구**, 3(2), 359-377.
- 박삼철(2012). 한국과 호주의 통합학교 운영 사례 비교 연구. **비교교육연구**, 22(2), 107-128
- 박소영(2004). 학생의 자발적 참여 제고를 위한 학생변인과 교사변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 22(2), 91-108.
- 박효정(2014). **방과후학교가 불안하다**. 경기: 도서출판 사과나무.
- 백경아(2008). 농어촌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 만족도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2012). 서울형 소규모·대규모 학교 기준 및 적절화 방안연구.
- 성열관·민부자(2007). 방과후학교에 기대해야 하는 것과 기대할 수 없는 것. **교육비평**, 22, 86-106.
- 성열관·민부자(2008). 방과후학교의 정책의도가 해석되고 이행되는 방식에 관한 두 학교 사례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14(3), 31-56.
- 송명수(2015). 서울의 소규모 초등학교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오세희·김대영(2017).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교육과정 만족도 비교: 울산 A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국교육학연구**, 23(2), 55-76.
- 오세희·김민희·김대영(2016). 울산광역시 통폐합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울산: 상북초등학교.
- 윤향미(2007).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저소득층자녀 자아존중감 향상 효과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이동성(2016). 농촌지역 소규모 초등학교 교사들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2016년도 한국교육과정학회 50주년 개막 학술대회집, 63-89.
- 이두휴(2011). 농산어촌지역 교육의 특성과 문제점 분석-세 학교에 대한 문화 기술적 접근. **한국농촌지도학회**, 18(3), 435-483.
- 이완형(2007).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강원도 영서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은화(2010).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및 개선방안에 대한 강사의 인식 연구.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인제(2010). 연구진실성과 연구윤리. **한국윤리교육학회**, 21(0), 269-290.
- 이자형(2011). 저소득층 밀집지역 방과후학교의 의미: B시 등대초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14(2), 129-161.
- 이현욱(2018). 자발적 독서활동이 초등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혜영(2010).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당면 과제와 발전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이화자(2007). 도시와 농촌 지역 간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만족도의 차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대학원.
- 장곡초등학교(2003). 소규모 학교 연계 도지정 시범학교 운영 보고서.
- 정경필(2009). 초등학교 수학과와 사교육과 방과후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도 조사. 석사학위논문.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8). 201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정책자료
- 조미영(2009). 소규모 초등학교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 석사학위논문.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청라초등학교(2004). 소규모 학교 연계 도지정 시범학교 운영 보고서.
- 홍후조·이승미·민부자(2005). 방과후학교의 교육활동 만족도 분석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보고서.
- Alderman, R. B.(1974). *Psychological Behavior in Sport*. Philadelphia: saunders.
- Altheide, D., & Johnson, J. M. C.(1998). Criteria for assessing interpretive validity in qualitative research. In K. K. Denzin & Y. S. Lincoln (Eds.), *Collecting and interpreting qualitative materials*. (283-312). Thousand Oaks, CA: Sage.
- Creswell, J.W., & Miller, D.L.(2000). Determining validity in qualitative inquiry. *Theory into Practice*, 39(3), 124-130.

- Guba, E. G.(1981). *Criteria for assessing the trustworthiness of naturalisticinquiries*. Educational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Journal, 29(2), 75-91.
- Patton, M. Q.(1980). *Qualitative research & evaluation method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Schubert, W. H.(1986). *Curriculum: Perspective, paradigm, and possibility*. New York: Macmillan.
- 강원타임즈(2011.07.28.). 교과부,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 발표. http://www.kwtimes.co.kr/n_news/news/view.html?page_code=&area_code=&no=4465&code=netfu_44711_17340&s_code=netfu_18573_42426&ds_code=에서 2017.1.13. 검색.
- 국제뉴스(2018.01.02.). 제주학생 행복지표 전국 최고...건강만족도 등 전국 1위. <http://www.jejunews.biz/news/articleView.html?idxno=29182>에서 2017.1.13. 검색.
- 울산매일(2016.08.09.). 미래학자들이 우리 교육에 던진 충고.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7396>에서 2017.1.13. 검색.
- 제민일보(2017.08.02.). 방과후학교 참여율 저조...사교육비 경감‘요원’.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62496>에서 2017.1.13. 검색.
- 헤드라인제주(2013.12.20.). 연합고사 날에 다시 생각해보는 제주고입제도 혁신방안.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6741>에서 2017.1.13. 검색.

【Abstract】

The Meaning of After-School for Primary School Students in Jeju rural area.

Kim Youn Ju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Education Consulti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Dae Young

This study is aimed to closely examine the meaning of after-school program for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in Jeju self-governing province. The specific research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participation motive for after-school program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Second, what meanings does after-school program have in terms of participating students' experience and understanding? Third, how to invigorate after-schools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The participant of this study is ten (10) elementary students of fifth or sixth graders aged 11 or 12 who has taken after-school programs for more than two years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in Jeju self-governing province. The group interview regarding this group was conducted based on the previous questionnaire survey. The related content was analyzed through the method of open coding, one of methods in qualitative analysis.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four categories: participation mode, meaning of after-school program, problems of after-school programs and measure to invigorate after-school programs. This research leads to following summarized conclusions.

First, it was verified that, with respect to participation motive for after-school

programs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the voluntary participation was made according to internal motive of the students concerned, while external motive led the students to after-school programs in case that the students chose to participate in after-school programs after consulting with their parents or with recommendation of their parents.

Second, the meaning of after-school programs from the viewpoint of the participating students was classified into four kinds of coding : self-development and self-satisfaction, autonomous class differentiated from school classes, alternative for remedial academic instruction, and function of child-care.

Third, conflict between autonomy and obligation was revealed as problems of after-school programs.

Four, as a measure to reinforce after-school program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experience-centered programs and specific programs for remedial academic instruction should be initiated.

When after-school program has diverse activities targeting students who have intellectual curiosity, specific interest, and skill aptitude, and attracts voluntary participation from interested students, more effectively operating after-school programs will prevail.

Key words: Elementary school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fter-school program, Elimination of educational gap, Qualitative research

[부록]

연구참여동의서	
연구제목	제주 농어촌 지역 초등학생들이 갖는 방과후학교의 의미
연구자	김 연 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및 교육컨설팅 전공)
<p>본 연구의 설문을 통해 제주 농어촌 지역 방과후학교의 의미는 농어촌 지역 초등 학생에게 특히 요구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무엇이며, 이들이 방과후학교 참여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농어촌 지역 방과후학교가 지향해야 하는 미래가 어떠한지 할 것인가에 관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어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p> <p>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2회 이상 집단면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각 면담 시간은 50분 내외로 진행 될 것이며, 면담 내용은 녹음 될 것입니다. 심층 면담이외에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유선 또는 이메일)를 부탁드립니다.</p> <p>본 연구에서 수집된 연구 참여자의 경험내용과 기타 자료들은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연구 참여자 개인 신상에 대해 어떠한 정보나 자료도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연구 참여자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p> <p>본인은 다음 시행을 이해했으며,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 목적과 과정은 성실히 설명되었습니다. 2) 본 연구가 본인에게 주는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3) 본인의 신상 정보 및 자료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은 철저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4) 본인은 면담과정에서 특별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원할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p>연구 참여자 : (서명)</p> <p>보호자 : (서명)</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p>2018년 월 일</p> </div>	

[부록]

제주 농어촌 지역 초등학생들이 갖는 방과후학교의 의미
면담 질문지

질문항목	질문 내용	비고
방과후교육 활동의 참여 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형태(자발적, 주위권유) 	개방형
방과후학교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학교 참여 동기 및 동기 변화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프로그램 선택 시 처음 생각과 수강 후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까요? • 방과후학교와 정규수업과의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방과후학교와 정규수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방과후학교와 사교육(학원)과의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학원에서 동일하게 개설된다면 어느 곳을 선택하게 될까요? 선택했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 방과후학교를 통한 경험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방과후학교를 수강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에 무엇을 했을까요? 방과후학교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개방형
방과후교육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의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② 그중에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프로그램 선택 시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프로그램 선택 시 선호도와 시간 중 어떤 점에 집중하여 선택하게 될까요? ②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시간이나 기타 다른 이유때문에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면 해결 될까요? • 프로그램 참여 시 느끼는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프로그램 수강 시 불편한 점은 없었나요? 	개방형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만족도(만족이나 불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프로그램 수강 후 계속 수업을 원하시나요? ② 원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③ 계속 수업을 원한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방형